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4호 【루계 제25643호】 주체106(2017)년 5월 14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세계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에스빠냐인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칠레맑스-레닌주의혁명당, 네팔공산당(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공산당(통일된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지도자, 베네수엘라근로자련맹 총비서, 말레이시아중국인당 총서기, 먄마련맹련대성말진당 총비서,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총비서, 《끼르기즈 엘》인민통일공화국정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수리아아랍민주동맹당 총비서,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당 총비서, 수리아 알 아흐드알 와따니당 총비서, 수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수리아공산당(통일) 총비서, 캄보쟈의 크메르민주당 위원장, 캄보쟈군쎈빼크당 위원장,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 총비서, 팔레스티나인민투쟁전선 총비서, 끼르기즈스딴아알람당 지도자,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총서기, 인도네시아다앙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총서기, 인디아사회주의통일중심당(공산주의) 총비서, 인디아인민당 교위지도자,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므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씨야민족구국전선 위원장,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마쟈르로동당 위원장, 벨가리아공산주의자통맹 명예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대리, 스위스공산당 총비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공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 체스꼬 체히-모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뽈스까공산당 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영국혁명적공산당(맑스-레닌주의) 총비서,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겸 국제비서, 총비서, 이딸리아 정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 이딸리아통일공산당 총비서, 기네뿌지개인민련합 총비서, 아프리카인민련합-기네민주당 총비서, 나이제리아부흥진보당 전국위원장,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나이제리아진보대련합 대리지도자, 말리를 위한 련합위원장, 모리따니공화국을 위한 련맹위원장,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세네갈사회당 총비서, 세네갈독립로동당 총비서, 콩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민주콩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총비서, 민주콩고공산당 총비서, 민주콩고로동당 총비서, 민주콩고 루뭄바주의통일당 총비서,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총비서,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질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 에질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 에질트민주동맹당 위원장,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베네수엘라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관계비서, 카나다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제1비서, 빼루사회혁명당 총비서와 국제비서, 자유루표통맹을 위한 빼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과 총서기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또한 아랍사회부흥당 부총비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 말따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남아프리카공산당 서기국장, 에질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 및 국제비서, 브라질로동당 국제비서, 미국로동자세계당 전국위원회 비서국 성원, 미국사회로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회 공동리사장, 명예부리사장,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총서기,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음연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세계평화리사회 위원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 리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리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로씨야 21세기관헌악단 단장, 로씨야련방 하바롭스크변강 장관, 하바롭스크시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꾸바, 네팔, 말레이시아, 먄마, 몽골, 수리아, 싱가포르, 캄보쟈, 쿠웨이트, 라이, 파키스탄, 팔레스티나, 까자흐스딴, 까타르, 뛰르끼예, 이란,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웰남, 노르웨이,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꼴도바, 벨가리아, 벨라루씨, 벨지끄, 스위스, 스웨리예, 슬로베니아,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뽈스까,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슬란드, 이딸리아, 에스빠냐, 기네, 나이제리아, 남아프리카, 세네갈, 잠비아, 차드, 꼬뜨디봐르, 민주콩고, 알제리, 앙골라, 우간다, 에질트, 에티오피아, 메히꼬, 바베이도즈,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볼롬비아, 빼루, 아르헨띠나, 에꽈도르,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친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특출한 령도력, 한없이 자애로운 인품과 력망으로 하여 인류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하면서 그들은 그이의 불멸의 업적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인디아공산당 전국리사회 총비서, 단마르크의 공산당 국제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쿠웨이트에서 업적증서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쿠웨이트아시아기자협회에서 업적증서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업적증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쿠웨이트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 협회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업적증서를 협회위원장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위원장 자위드 아흐마드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께 업적증서를 드리게 된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하였다.

증서에는 쿠웨이트아시아기자협회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업적증서를 드린다고 씌여져 있다.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위인칭송의 도서, 시집들

로씨야에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에서 도서 《인민사랑의 태양》, 《위인들에 대한 추억》, 시집 《사랑의 꽃 진달래》, 《조선을 노래하노라》가 출판되였다.

도서발행식이 5일 세계문명대학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에는 로씨야자유민주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로씨야작가동맹, 세계문명대학의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발행식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위원장 쉐. 아. 에므르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을 여러차례 방문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들을 많이 탐독하였다.

그 과정에 인민사랑의 화원인 조선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도서 《인민사랑의 태양》에는 열화같은 애민정치로 일심단결을 마련하시고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우신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의 업적과 북반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이 서술되여있다.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였지만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있는 조선의 사회주의는 오늘도 승승장구하고있다.

진정한 사회주의를 알려면 조선에 가보아야 한다.

로씨야작가동맹 성원 류드밀라 아브제예바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김정숙동지는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 절세의 위인들이시다.

그분들의 덕원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앞으로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을 칭송하고 조선을 노래하는 시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

세계문명대학 제1부총장 프꼬페바는 위인칭송의 도서발행식을 대학에서 진행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로조친선관계를 더욱 두터이하는 행사들이 계속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림업성아래 14개의 사업소, 100여개 작업소들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속에 림업성적으로 4월말까지 14개의 사업소와 100여개의 작업소들에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림업성과 각지 관리국, 사업소당조직들에서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생산자대중이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불붙는 산판마다에서 드세게 들이대였다.

겨울철산지통나무생산이 올해 통나무생산계획수행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자강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통나무, 통밭나무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8개의 사업소와 근 50개의 작업소들에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결속하였다.

이곳 관리국참모부에서는 산지통나무생산단위들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한편 작업소들사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높은 실적이 기록되게 하였다.

성간림산사업소의 복동, 적암, 창평작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기계톱의 리용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산세에 맞게 사이나르기에 통쏘이와 소발구운재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년간 산지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였다. 송원, 회천, 동신평목생산사업소아래 작업소들을 비롯한 수십개 작업소들에서는 생산조직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는것과 함께 서리치기를 앞세우고 나무베기공, 밀대공, 아지따기공들의 역할을 높여 매일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량강도림업관리국아래 갑산림산사업소의 송암, 남대, 수풍, 신명, 양흥작업소와 풍서림산사업소의 룡문, 수운작업소를 비롯한 19개 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산지통나무생산전투를 줄기차게 벌려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특히 갑산림산사업소에서는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철통나무생산을 위한 림지를 바로 정하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모든 작업소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결속하는 혁혁한 전과를 이룩하였다.

함경남도림업관리국아래 장진림산사업소와 수동평목생산사업소, 함경북도림업관리국아래 연사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려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이들은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채벌장조건에 맞게 통쏘이길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베어낸 통나무들을 신속히 나무머로 운반하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강원도림업관리국아래 통천평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생산조직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산판마다에서 줄기찬 투쟁을 벌려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기한전에 결속하였다.

정안남도림업관리국아래 여러 작업소로동자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기계톱을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소발구운재와 통쏘이를 적극 받아들여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본사기자 정경철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드높이

안주절연물공장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불길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더욱 기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속에 안주절연물공장에서 지난 4월 30일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53%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현물지표계획인 절연칠감, 전기절연천생산계획도 101%, 100%로 완수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떳떳이 맞이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참모부에서는 생산의 량적장성과 함께 질제고를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급수높은 절연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았다.

절연작업반의 로동자들은 도선도료용와니스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생산주기를 단축하고 생산성을 지난해에 비해 1.2배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공장에서는 광명성절까지 2월 인민경제계획을 현물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줄기찬 련속공격전을 들이대여 지난 4월말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공장에서는 세계적수준의 금수높은 절연물개발사업도 동시에 내밀어 시제품생산에서 성공하였으며 전기기구생산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다그치고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정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보다 큰 로력적성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내일 열의에 넘쳐 련속공격,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벌리고있다

—평양유로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일념안고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함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된바람

전국각지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학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된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새 세대들이 훌륭한 교육제도, 훌륭한 교육조건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의 전면적실시와 함께 전반적의무교육기간이 한해 더 늘어나고 교종들이 새롭게 정비되는데 맞게 교실들을 늘이고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갖추어 교육무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투쟁이 지금 전국각지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각급 학교꾸리기지휘부들에서는 매주, 매월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총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성, 중앙기관들, 각급 당위원회, 정권기관들과 후원단체들이 발동되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평양시가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모든 학교들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꾸리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전국의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이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학교들을 말아가지고 전국의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형제산구역, 서성구역, 만경대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의 책임일군들도 학교개건에 필요한 자재보장과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빠른 속도로 밀고나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올해 락랑구역에서는 책임일군들이 학교들에 많은 콤퓨터들을 마련해주어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의 졸업시험을 콤퓨터에 의한 일제시험으로 보장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시학교꾸리기지휘부에서는 지휘부의 력량을 강화하고 표준설계안에 따르는 구역, 군들의 학교건설과 개건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면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황해남도에서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학교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배천군, 강령군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시, 군책임일군들이 학교건설과 개건에 필요한 건설자재와 교육설비보장을 위해 뛰고 또 뛰면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봉천군 대아리, 안악군 금강리를 비롯한 많은 리들에서 학교건설에 큰 힘을 넣고있다.

도에서는 후원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학교들에 교육설비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함으로써 현재 도안의 수백개 학교들이 국가망가입을 완료한데 이어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황해북도의 사리원시, 수안, 연탄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학교꾸리기지휘부들에서는 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고 학교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로력보장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에 발을 맞추어 중화군 삼성리, 연탄군 풍답리, 린산군 룡석리, 토산군 음협동농장과 상원군 룡곡리들에서도 학교건설과 개건보수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평안남도학교꾸리기지휘부에서도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설계력량을 총동원하여 학교건설과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도적으로 4월에 계획한 량의 2배이상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수십개에 달하는 학교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강계시와 장강군을 비롯한 자강도의 여러 시, 군들에서도 학교건설과 개건을 적극 다그치고있으며 시중군, 룡림군에서는 후원단체들을 발동하여 교육설비들을 충분히 마련함으로써 4월계획에 반영된대로 교실들을 전부 다기능화된 교실로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밖에도 남포시, 라선시,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에서도 학교꾸리기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각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들에 다기능화된 소조실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기계공업성, 륙해운성, 화학공업성, 문화성, 경공업성에서 발전기원리기구, 악기 등 계획된 실험실습설비와 시약, 기자재들을 충분히 생산보장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학교들을 적극 지원하였다.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가는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의가 나날이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매일 많은 전력을 증산

서두수발전소에서

서두수발전소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전력증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4분기 전력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계속 힘찬 돌격전을 벌려 하루평균 백수십만kWh의 전력을 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올해 높이 세운 전력생산목표를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모든 선동원들이 선동자료들과 정치사업자료, 해설담화자료들을 빈틈없이 갖추고 전투현장에서 화선식선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지배인을 비롯한 발전소일군들은 과학기술중시에 전력증산의 기본담보가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발전설비들의 현대화를 방법론있게 내밀고있다.

발전소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시야를 넓혀주면서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잘 보장해주고있다.

발전소의 기술집단은 전력공업성의 기술력량과 힘을 합쳐 수자식조속기를 제작도입함으로써 발전계통과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으며 새형의 수차를 제작도입하여 발전효률을 보다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한kWh의 전력이라도 더 증산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줄 불타는 열의가 모든 전력생산자들의 심장마다에 차넘치고있다.

서두수2호발전소에서 전력증산의 동음이 계속 높이 울리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은 물을 잡아놓은데 맞게 발전기운영호기대수를 늘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기술자들과의 련계밑에 수차와 려자기, 조속기를 비롯한 설비와 장치보수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여 발전기들마다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매일 많은 량의 전력을 증산하고있다.

서두수1호, 3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발전기들의 대보수기일을 단축하고 발전설비들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며 전력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전기기계직장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발전설비들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부분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발전소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매일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며 전력생산계획을 매월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백두의 대업의 승리가 있다

성스러운 조선혁명사에 특기할 격동적인 승리의 날과 날이 흐르고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노도의 기상으로 돌진하는 천의 대오에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이 활화산같이 분출하고있다.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리익을 위하여 반미대결전에서 천전천승의 통쾌한 승리를 부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아오신 거창하고 긍지높은 현실이다.

침략의 무리들이 그처럼 미친듯이 전쟁설을 광고할 때 4월의 경축광장을 요란하게 누벼간 다종화된 타격수단들과 각 군종, 병종열병대오들의 도도한 흐름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그로부터 열흘후인 뜻깊은 건군절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의 장쾌한 폭음 또한 우리 천만군민의 귀전을 쟁쟁히 울려주고있다.

백두의 대업의 최후승리를 그려보게 하는 선군조선의 자위적인 국방력의 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에게 무엇을 추억하게 하며 어떤 신념을 만장약해주는것인가.

* *

지난 4월 어느날이였다.

국방력강화와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 마음을 승엄히 얹으시고 사랑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국방력강화에 세워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할 력사를 모르고서는 누구도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으로 당당히 위용떨치는 우리 조국의 지위를 다 안다고 말할수 없음을 깨우쳐주시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였다.

사생결단의 신념과 의지로 이어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추억하는 우리의 가슴에 어느해 추석날의 일이 뜨겁게 들이켜진다.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저 간 동지들에 대한 추억이 간절하다고, 특히 고난의 행군시기 자신과 함께 온갖 시련을 헤쳐온 동지들에 대한 추억으로 감회가 깊어진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내가 고난의 행군을 어떤 신념과 의지로 헤쳐왔는가 하는데 대하여 다는 모를것이라고 하시며 피눈물의 그 나날을 회고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나에게 모든것을 의탁하였지만 나는 그들에게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해줄수 없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나에게는 가슴아픈 보고들만 올라왔지 무슨 일이 잘되어간다는 보고는 거의나 올라오지 않았다.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이어갈 무거운 임무를 한몸에 걸머진 나에게 있어서 고난의 행군시기는 말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힘들고 시련에 찬 시기였다. …

조국이 자신을 지켜보고 인민들이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는데 이 시련을 이겨내야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조국을 지키며 인민들을 잘살게 할수 있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분연히 일떠서시던 나날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 인민들이 자주적인민으로 떳떳이 살아나갈수 있게 하는 길은 제국주의와 맞서싸우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줘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부르며 선군혁명의 길을 꿋꿋이 이어왔다. 고난의 행군 천키간 나는 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인민,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살았다. …

조선혁명이 얼마나 피어린 자욱자욱을 걸어왔는가를, 우리가 흘린 피의 대가를 절대로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함을 뼈에 새겨주시는 간곡한 교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크게 공헌한 연형묵, 박송봉동지들이 자신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회고하시면서 우리는 남들같으면 열백번 쓰러져 일어서지도 못할 고난의 행군을 선군의 위력으로 빛나게 결속하였다고, 혁명을 끝까지 헤나가자면 우리가 신념과 의지로 헤쳐온 고난의 행군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가슴아픈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어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구쳐오르던 그 나날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시기는 주체95(2006)년 10월이였다.

미제는 한쪽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목적으로 무력을 증강하고 군사연습을 그 어느때보다도 광란적으로 벌리는가 하면 다른쪽으로는 금융제재가 북조선을 조이는 올가미라고 웨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포괄하는 국제적인 금융제재망을 형성하여 우리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해상봉쇄 등을 비롯한 별의별 추악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와 봉쇄를 국제화해보려고 날뛰던 때였다.

지어 미제는 우리의 핵시험설을 세계적으로 여론화하면서 우리에게 미래와 핵무기중 한가지를 선택하라고 압박하였다. 그러되 핵시험을 하면 즉시적인 군사적타격을 가하겠다고까지 위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략적구상에 따라 공화국은 적들의 악랄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위하게 된다는것을 밝히는 외무성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우리가 핵시험을 하게 된다는것을 공포한 다음 미국의 극단적인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시험을 진행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는것과 우리의 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의 침략위협에 맞서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과 민족의 안전을 지키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미제는 즉시 불에 덴 황소마냥 날뛰며 우리가 핵시험을 하지 못하도록 《의장성명》이라는것까지 발표하게 하며 위협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핵시험선언이 발표된지 6일만에 우리는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는 보도를 날렸다.

100% 우리의 지혜와 기술에 의거한 핵시험에서의 완전한 성공은 세기를 두고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경사였으며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일대 사변이였다.

핵시험의 성공, 그것은 총대가 없어 주권을 빼앗긴 망국의 력사, 총이 모자라서 남반부의 90%이상을 해방하고도 락동강가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되돌아서야 했던 가슴아픈 일이 영영 되풀이되지 않게 되였음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명실공히 힘있는 나라, 힘있는 민족의 존재를 선언한 극적인 사변이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총화하고 바야흐로 핵대국들과 당당히 맞서나갈수 있게 된 력사적위업의 실현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국방력이 강하기때문입니다.》

그 어떤 외세의 침략과 위협에도 끄떡없는 강력한 군력을 가지고싶어하던 민족의 세기적념원이 실현된 그해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적경사의 기쁨을 전사들과 함께 나누시였다.

나는 수령님의 유훈과 우리 민족의 세기적념원을 가슴에 안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적들도 감히 접어들수 없는 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껏 일하여왔으며 드디여 이번에 핵시험을 성공시켜 조국의 무궁번영을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우리 나라가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됨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의 권위와 민족의 존엄을 더욱 굳건히 지켜낼수 있게 되였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도 크게 기여할수 있게 되였다. 이제는 그 어떤 적들이 덤벼들어도 선군조선은 끄떡없게 되였다. 우리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과 일심단결, 핵억제력까지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어찌지 못한다. …

우리는 이번 핵시험의 성공을 통하여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이 그 어떤 적과도 맞서싸울수 있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였다는것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선포하였다. 핵시험의 성공으로 자위적핵억제력이 확고히 마련된 오늘에 와서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지난 기간 우리 당이 왜 선군의 기치를 들고 그처럼 어려운 시련의 길을 헤쳐오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게 되였을것이다. …

세계정치계가 벌석 끓어번졌다.

《미국의 핵전파방지정책과 대조선적대시정책 용과산》

《북조선을 〈속국〉처럼 여겨오던 대국들의 오만성에 종지부》

《북조선은 혜록탄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수 있는 기술적수준에까지 도달, 북조선이 핵보유국이라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

《핵시험으로 북조선이 잃게 된것, 떨어버리게 된것은 미국의 항시적인 침략위협과 선제공격위협, 대국들의 못된 〈버르장머리〉, 미국이 동맹국들과 세계를 동원하던 반공화국압력책동이며 북조선이 얻게 된것은 핵보유국의 강력한 지위, 상용무기를 줄이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번영의 시대 도래》

《만일 미국이 북조선을 계속 압박하면 북조선은 앞으로 핵시험을 계속할수 있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이 국방에 힘을 넣으면 경제가 약화되고 사회발전이 떠진다고 떠벌이면서 자기 나라의 국방력을 체계적으로 허물던것이 결코 먼 옛날의 일이 아니다.

배신자들에게 차례진것은 신성한 자주적권리의 침해와 송두리채 빼앗긴 혁명의 전취물이였고 우리가 얻은 진리는 사랑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절대로 살수 없다는 혁명사의 정의였다.

국방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고 생존권이며 운명이고 존엄이다.

이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다.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인 《ㄷ, ㄷ》결성 80돐이 되는 날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국방력이 약하면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며 종당에는 남에게 예속되어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도 국방력,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데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지 않았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뼈에 새기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인 《ㄷ, ㄷ》결성 80돐이 되는 날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국방력이 약하면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며 종당에는 남에게 예속되어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도 국방력,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데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지 않았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뼈에 새기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당의 뿌리이고 선군의 시원이며 단결의 전형이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인 《ㄷ, ㄷ》결성 80돐이 되는 날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국방력이 약하면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며 종당에는 남에게 예속되어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도 국방력,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데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지 않았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뼈에 새기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 하지만 리성을 잃고 날치는 침략의 무리들과 그에 편승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몰아오는 각양각색의 광풍을 길들이는 최강의 무기는 구걸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다.

국방공업은 군사력의 물질적기초이다.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방공업을 계속 발전시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새롭고 위력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무장장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투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선군정치는 민족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최우선시하는 위대한 정치이다.

강위력한 국방력을 떠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이란 있을수 없다.

민족존엄과 리익을 수호하는 투쟁은 곧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 반미대결전이다.

일시적인 안락이 아니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 번영을 영원히 담보하는 전략인 병진로선, 이는 우리의 생명이고 최후승리의 담보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골자로 하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정신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피끓는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사회주의강국위업을 위한 생명선이다.

또 한차례의 반미대결전을 치르며 우리 다같이 보고 절감하지 않았던가.

수리아에 대한 불의적인 순항미싸일타격,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초대형폭탄투하를 감행한 미제가 그것이 우리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내놓고 떠들던 때,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군사적모험광기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이 실지로 마지막단계에서 타들어가던 지난 4월 15일.

우리 조국의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되였다.

원쑤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침략의 아성을 단배에 족랑칠 멸적의 의지가 굽이치는 열병대오들의 도도한 흐름, 도발의 본거지들을 섬멸의 타격권에 잡아넣고 하늘과 땅, 바다에서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안길 기개로 장렬로신들을 지연히 추켜들고 나아가는 땅크, 장갑차종대, 포병종대, 군종로케트종대들, 원쑤들이 조금만 움찌해도 노호한 격멸의 불세례로 답새길 기세로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질량적으로 강화된 전략군로케트종대들…

4월 25일.

이날에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경축하는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가 건군사상 최대규모로 성대히 진행되였다.

신속히 침하하여 《적》함선들에 강력한 어뢰공격을 들이대는 잠수함들, 초저공으로 바다우를 스칠듯 날으며 목표상공에 진입하여 멸적의 폭탄들을 불소나기마냥 쏟는 추격기, 습격기, 폭격기들…

일제히 포문을 열고 우뢰같은 폭음과 멸적의 불줄기로 연해연방 《적진》을 산산이 들부시는 300여문의 대구경자행포들…

그 가슴후련한 광경을 보며 천만군민은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엄숙한 선언을 다시금 뼈에 새기지 않았던가.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을 과시한 열병식과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는 침략과 간섭의 원흉인 미제와 추종세력들의 정수리를 철퇴로 후려친 쾌거였다.

제국주의자들의 핵공갈과 침략위협이 계속되는 한 세대가 바뀌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절대로 핵을 약화시킬수도 포기할수도 없으며 주체적인 핵무력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철의 신념이다.

까마귀 열백번 둔갑해도 백로로 될수 없듯이 세기를 넘어 우리에게 못된것만 해온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무장해제시켜 고분고분하게 만들려는것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날강도적생리이다.

세상이 제것인듯 기고만장하여 날치는 침략의 무리, 강권과 전횡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자들, 간섭과 추종에 명줄을 건 어중이떠중이들에게는 절대로 자제가 통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원한 과녁은 본성이 변하지 않는 침략의 무리와 그자들의 장단에 춤을 추는 추종세력이다.

우리의 정의로운 사회주의위업을 압살하겠다고 달려드는 침략의 무리를 제압하는 일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신해줄수 없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계속 높이는 조건에서, 각종 전쟁광란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통제불능의 위기에로 몰아가는 한 우리는 강위력한 국방성새를 더 억척같이 구축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그 어떤 형태의 도발책동에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멸적의 신념을 만장약하고있으며 온 세상을 통채로 준다 해도 우리의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과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 마음속에 안고 사신 연길폭탄정신이 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보시며 조선혁명의 초창기 밀림속의 병기창에서 만들어진 연길폭탄이 오늘은 세계가 공인하는 강력한 최력타격수단으로 발전되였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깊은 말씀은 자력자강으로 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실 그이의 승고한 의지의 말씀이다.

난관들과와 사생결단의 투쟁의 산물인 연길폭탄정신을 체질화한 인민의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자위적국방력의 성새를 더 높이 쌓고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가를, 어떻게 백두의 대업의 눈부신 승리의 축포를 화려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하늘이 내린 성인

일제의 발굴밑에 신음하던 민족수난의 그 세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건설적위인상을 《백두산정기를 한몸에 지니신 겨레의 구세주》, 《백성들에게 만복을 가져다주시는 하늘이 낸 성인》으로 칭송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분이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17(1928)년 2월 어느날 내도산부락에 와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불교 교주 장두범을 찾아가시였을 때의 일이다.

한때 독립군에서 싸우던 그는 독립군이 맥을 못 추게 되자 내도산에 들어와 돼놈들에게 천벌을 내려달라고 백두산천기에 빌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하는 천불교를 만든 사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 그에게 생활형편과 천불교의 교리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교주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왜놈들에게 천벌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는 은정을 베풀어줄것을 바라는것은 애국의 넋이 깃든 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어떤 《신》적인 힘에 의해서는 결코 일제를 조선땅에서 몰아낼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 힘은 오직 우리 2천만 백의동포가 하나로 뭉쳐 싸우는데 있다고 이야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애국적청년들이 여러곳에 반일조직을 뭇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데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2천만동포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그이의 말씀은 교주를 흥분시켰다.

교주는 무릎을 치면서 우리 동포들이 하나로 뭉치면야 얼마나 좋겠는가고, 그전날 독립군부대들이 패한것도 다 서로 단결되여있지 못했기때문이라고 한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녀로소, 신앙과 정견을 가리지 말고 모두가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를 독립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내도산인민들을 각성시키고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자면 지난날 독립운동을 한 교주와 같은 어른들이 이 사업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깊은 뜻을 담아 이야기하시였다.

교주는 눈물이 글썽하여 우리 수령님의 두손을 잡고 말하였다.

《과시 김성주선생님의 뜻은 높고 비범하기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소. 내 오늘 김성주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내 할바를 알게 되였소.》

그러면서 교주는 자기가 백두산하늘을 믿은 보람으로 오늘은 이렇게 김성주선생님을 만나뵙게 되였다고 여간만 기뻐하지 않았다.

그후 그는 교인들앞에서 늘 이렇게 심정을 터놓군 하였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처럼 믿어오던 백두산하늘이 내린 성인은 김성주선생님이요.》

본사기자

력사의 닻을 올리시던 나날에

어머님의 웅심깊은 당부

무송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댁 안팎은 많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반년전 그이께서 화성의숙으로 떠나실 때도 그리하였지만 길림으로 가시는 우리 수령님을 바래워드리려고 온 마을사람들이였다.

배웅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나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께 추운데 밖으로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시였다.

《아무리 추운들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겠느냐. 내 걱정은 말아라.》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으로 갈 결심을 말씀드리셨을 때에도 학비걱정은 아예 말고 품었던 뜻을 꼭 이루라고, 이왕 새 길을 가려고 결심한바에는 걸음을 걸어도 굳직하게 걸으라고 적극 고무하신 어머님이시였다.

바로 그런 어머님이시기에 오늘도 길림으로 가시는 그이의 걸음을 힘껏 떠밀어주시는것이리라.

고개마루까지 따라나오신 어머님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디 몸성히 계시라고 인사를 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당부하시였다.

《내 걱정은 말아라. 네가 몸 편하고 공부를 잘하면 내게 무슨 고생이 있겠니. 사나이 열여섯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다. 좋은 뜻을 굽히지 말고 꼭 성공하여라.》

교장을 감동시킨 원대한 포부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을 성심성의로 도와나선 사람들가운데는 길림육문중학교 리광한교장도 있었다.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의 친구들의 소개로 리광한교장을 찾아가시였다.

초면이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학교를 졸업하면 장차 어떤 일을 할 생각인가고 묻는 교장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찾는 일에 한몸 바치고싶다고 서슴없이 대답하시였다.

순간 교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한껏 어리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는 그이의 뜻은 얼마나 크나큰것인가.

교장은 감동깊은 어조로 아주 좋은 포부라고 그이의 말씀을 지지해주었다.

그후 리광한교장은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하시는 그이를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을 거치지 않고 2학년에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그이의 요구를 쾌히 들어주었고 혁명사업때문에 자주 학교에 나오지 못하신다는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주었다. 군벌당국에 매수된 반동교원들이 함부로 수령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보호도 해주었다. 군벌이나 령사관경찰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체포하려 올 때면 미리 련락하여 울타리밖으로 빼돌리기도 하였다.

사람은 재부나 용모가 아니라 뜻과 사랑, 믿음과 정에 끌린다고들 한다.

혁명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운 길림시절의 리광한교장을 우리 수령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잊지 않고 추억하시였다.

명주천에 수놓은 붉은 오각별

주체17(1928)년 여름 어느날 차광수동지는 마을의 녀성반제청년동맹원들을 불렀다.

동맹원들이 다 모이자 차광수동지는 줄안에서 손수건만 한 흰 명주천을 어려개 꺼내였다.

그는 거기에다가 붉은색실로 오각별을 수놓으라는 과업을 주면서 이 일은 매우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니 정성껏 수를 놓아야 한다고 그들을 박았다.

동맹원들은 며칠밤을 새워가며 명주천에 한땀두땀 수를 놓았다. 명주천을 받아든 차광수동지의 얼굴에는 기쁨이 일렁이였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을 소집하시고 그들을 새로운 공작지들에 파견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 주시는 임무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공작지들로 떠나려고 할 때였다.

차광수동지는 그들에게 그 명주천을 하나씩 나누어주며 말하였다.

《여기에 수놓아진 붉은별은 한별동지를 상징한것이고 흰색은 그이를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의 결백성을 상징한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다시 한별동지와 멀리 떨어져 각기 혁명초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붉은별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언제나 한별동지를 생각합시다.

혁명의 길우에 모진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하더라도 가슴에 품은 붉은별명주천을 만져보며 혁명의 향도성을 우러러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붉은별이 수놓아진 명주천을 받아든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공작지로 떠났다.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간직한 붉은 오각별!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열혈심장들은 이렇게 뜨거웠고 변함이 없었다.

본사기자 리금분

최룡해동지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현지료해

【평양 5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든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안고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당에서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넘쳐 수행할 기세드높이 모판관리와 모내기, 강냉이심기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최룡해동지는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파하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다수확운동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최룡해동지는 청년분조의 사업을 료해하고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농장청년동맹조직과 청년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청년전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을 지켜선 긍지드높이 시대의 앞장에서 달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원쑤들의 책동을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짓뭉개자

들끓는 전투장들에 높이 울리는 사상전의 포성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모내기전투장들에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리는 극악한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모내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지난 10일 신의주광장에서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의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모든 시, 군,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리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신의주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수천명의 선전선동력량과 10여대의 방송선전차, 1 000여대의 포전방송기재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준비하고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높은 실효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모든 단위들에서 선동원들과 녀맹예술선동대원들에게 복장도 마련해주고 음향증폭식메가폰을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갖추어주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정주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선동원들과 5호담당선전원, 녀맹예술선동대, 직외강연강사들을 비롯한 수천명의 선전선동력량과 방송선전차, 포전방송기재, 음향증폭식메가폰, 이동식속보판 등을 모내기전투장들에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협동벌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고있다.

룡천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 모내기전투에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모든 농장당조직들에서 포전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염주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와 군안의 협동농장당조직들에서는 1 200여명의 선동원들에게 음향증폭식메가폰과 선동자료들을 갖추어주어 모내기전투장들이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철산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모내기전투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곽산, 동림, 운산, 창산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모내기전투장들에서 군기동예술선동대활동과 방송선전차활동을 활발히 벌리는데 힘을 넣고있다.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모내기전투가 벌어지는 군안의 농장들을 순회하면서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있다.

창성, 벽동, 동창, 삭주군을 비롯한 여러 군당조직들에서도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총집중하여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와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직외강연강사들을 모내기전투장들에 내보내여 포전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심속있게 짜고들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의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집중강연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여러해전부터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사회주의협동벌을 비롯한 여러 전투장들에서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과시된 집중강연선전활동의 위력이 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집중강연선전대과견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그들이 현지에 나가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이 집중강연선전대원들과 함께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전투장들에 찾아가 화선식강연선전활동을 전투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미전에 려명거리건설전투장에서 대중을 혁신에로 불러일으키는 강연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 높은 평가를 받은 리철, 강철수, 송은식동무를 비롯한 강연강사들은 영농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구룡협동농장을 비롯한 평도업적단위들에 나가 인민생활향상에서 알곡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실감있게 해설해주면서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와 지역들에 나간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휴식시간에는 해당 단위의 구체적인 실정과 소행자료들을 알려주면서 강연선전을 구수하게 하여 그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사리원시와 정산군, 토산군, 금천군당위원회들에서는 책임일군들이 집중강연선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현실성있게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전투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선전활동도 하고 때로는 가정을 방문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서기 위한 오늘의 전투에서 영예의 승리자가 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다른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도 강연자료의 실례들을 구체적현실에 접근시키게 하고 강사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강연강사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우리 인민의 수령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동한 자료를 들어가며 감동적으로 하여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도의 집중강연선전대들은 짧은 기간에 수십만명을 대상으로 강연선전활동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투분위기가 날로 고조되였다.

집중강연선전활동에 고무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원쑤들의 책동을 짓뭉개는 심정으로 일터마다에서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무자비한 철추를!

◇ 영웅적로동계급이 불구대천의 철천지원쑤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치를 떨고있다.

우리의 생명이며 운명인 최고존엄을 감히 어째보려고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그처럼 무서운 흉계를 꾸민 미친개무리들을 어찌 용서할수 있으랴. …

《너무도 이가 갈려 참을수 없다. 이 무쇠철마로 악의 본거지, 모략의 소굴을 흔적도 없이 갈아엎어 영영 매장해버리겠다.》, 《전기로의 쇠장대에 천인공노할 테로행위를 저지른 마지막 한놈까지 모조리 찌어 씨종자도 없이 불태워버리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에 접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분출되는 우리 로동계급의 격노한 함성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로동계급만이 아닌 이 나라 남녀로소모두의 가슴마다에도 천백배의 징벌의지가 활화산마냥 끓어넘치고있다.

◇ 원쑤격멸의 보복성전은 가장 견결한 수령사수전, 수령옹위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처럼 투철한 반제혁명정신을 지니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련전패승을 떨쳐온 인민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위대하고 영웅적인 인민이 있는 한 선군조선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승리할것입니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천만군민의 제일생명이고 최대의 시명이다.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그 어디에 있건 하늘땅을 다 뒤져서라도 끝까지 찾아내여 가차없이 소탕해버리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는 두철하다.

혁명의 사령부로 날아드는 적탄을 성새, 방패가 되여 막아내고 소금사건과 같은 비렬한 음모들을 철저하게 짓뭉개버린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러하였고 최고사령부를 해치려던 미제의 고용간첩들과 계급적원쑤들을 한생을 다 바쳐서라도 마지막까지 적발분쇄한 보위전사들이 그러하였다. 강선의 로동계급과 자강도인민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과 청년학생들도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여 천겹만겹의 방탄벽이 되였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 테로의 왕초인 미제가 있는 한 우리의 타격목표, 기본과녁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오늘의 수령옹위전은 특대형국가테로행위의 주범, 공범들은 말할것도 없고 음모와 모략의 소굴, 이 세상 악의 근원을 가장 처절하게 송두리채 쓸어버리는 성전으로 될것이다.

◇ 증산과 혁신의 거세찬 동음으로 원쑤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자, 이것이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의 멸적의 의지이다.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결사의 투쟁을 벌려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101.5%로 넘쳐 수행하고 당에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당에서 그토록 높이 내세운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자업반의 뒤를 따라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을 더욱 맹렬히 일으키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전전선에서 이룩되는 커다란 앙양은 원쑤들의 정수리에 쏟아지는 벽력탄이나 같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이 거세롭게 올리는 생산과 건설의 동음, 온 나라 협동벌마다에 펼쳐지는 푸른 주단, 우리의 두뇌전, 실력전으로 안아오는 첨단돌파와 국산화, 현대화의 성과들은 미제와 온갖 적대세력들을 전률케 하는 대승전으로 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여! 수령결사옹위의 서슬푸른 칼날을 더욱 억세게 벼리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승전로정을 계속 높이 올려나가자.

악의 본거지에 통구멍을

중봉탄광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특대형국가테로음모를 낱낱이 밝가놓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에 접한 중봉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보복의 열기로 가슴끓이며 석탄생산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이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계승하여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우리 당과 뜻을 같이하고 영원히 생사운명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탄광당조직에서는 막장마다에서 인간쓰레기까지 내세워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려 한 미제와 괴뢰패당의 비렬한 음모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기 위한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증산돌격전의 앞장에 청년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그들이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복수심을 천백배하며 오늘의 힘찬 로력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탄광의 당, 행정일군들은 한개 소대씩 맡고내려가 청입식정치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들이대여 생산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면서 새 기록, 새 기준을 련이어 창조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일군들과 탄부들의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불타는 적개심은 그대로 화약에 불이 달린것과 같이 석탄증산투쟁에로 이어지고있다.

우리 인민모두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기둥, 우리의 영원한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고 미쳐날뛰고있는 극악한 살인악마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증산돌격전의 함성이 되여 울려퍼지는 속에 1갱 2중대 정성철소대, 박천복소대, 3갱 2중대 유일영소대, 리광명소대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성과에 고무된 굴진 및 채탄소대들에서도 악의 본거지에 통구멍을 내는 심정으로 설비들의 만가동, 만무하를 보장하고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제재책동으로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자력자강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 확고한 관점밑에 탄광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무려놓은 자력갱생기지들이 생산에서 은을 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광무직장의 로동계급은 산소분리기와 탄차바퀴베아링제생기지를 활발히 운영하여 탄차와 전동기수리를 비롯하여 석탄생산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설비와 부속품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생산정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자각한 탄광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있다.

지금 중봉탄광의 전체 일군들과 탄부들은 미중앙정보국과 괴뢰국정원을 비롯한 음모와 모략의 소굴에 쥐새끼처럼 들어박혀 온갖 쏠라닥질을 다하고있는 놈들을 모조리 잡아 죽탕쳐버릴 보복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석탄증산의 동음을 더욱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심 학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인민의 무비의 정신력의 최고표현으로, 모든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되고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리고 감행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특대형테로범죄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에 접하고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끓어번지는 대건객화차대 화차수리현장이다.

극악한 살인악당들의 대갈통을 지지대듯 쉬임없이 불꽃을 날리는 용접공들, 분노의 함성인양 거세차게 울리는 차갈이기관차의 기적소리…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원쑤들을 죽탕쳐버릴 멸적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세멘트와 화력탄수송화차들의 수리전투를 줄기차게 벌려가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열띤 모습이 안겨온다.

수리를 마친 화차가 수리선을 빠져나가기 바쁘게 또 한량의 화차가 들어선다. 기다렸다는듯이 문형기중기가 다가와 차체를 슬쩍 들어올린다.

참모장 김명철동무를 비롯한 객화차대의 일군들이 수리공들과 함께 특대형국가테로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잡아내여 각을 뜨는 심정으로 날렵하게 분해작업을 진행해나간다.

현지보도 원쑤격멸의 의지 차넘친다

대건객화차대 화차수리전투장에서

대차들을 끌어내기 바쁘게 자체로 제작한 가열기를 리용하여 베아링을 능란한 솜씨로 교체해가는 수리중대장 정효남동무와 수리공들의 얼굴들도 가증스러운 원쑤들의 온갖 비렬하고 횡포무도한 모략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마치로 짓부셔버릴 복수의 열기로 달아있다.

그들의 멸적의 기상에 저도모르게 우리도 더욱 격동되여 위재수첩과 원쑤필을 으스러지게 그러쥐는데 수리전투를 지휘하던 대장 김경범동무가 곁으로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극악한 살인악당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릴 의지로 이글이글 타는 우리 로동자들의 눈을 보십시오. 이 화차수리전투장을 원쑤들과의 대결장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기세를 올리고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의 열기로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는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에 의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고 종전보다 화차들의 수리정비시간이 훨씬 단축되고있다고 덧붙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차수리전투장의 숨결은 더욱 높아간다.

《기중기—》

누군가가 문형기중기를 소리쳐부르자 허공으로 들리웠던 차체가 서서히 대차우에 내려앉는다. 때를 기다리던 조립공들이 차체를 대차에 재빠르게 결합시켜나간다.

수리한 화차를 검사원들이 깐깐히 살피고나서 합격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먼이은 위훈의 소식을 전하는 전투속보가 현장에 나붙는다.

《보복성전의 하루》, 《원쑤격멸의 의지로 하루계획 150% 완수》

《붕—》, 또다시 한량의 수리된 화차를 달고 수리선을 빠져나가는 차갈이기관차의 힘찬 기적소리가 울려퍼진다.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화차수리전투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이곳 철도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찬하며…

본사기자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살인악마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결의에 넘쳐있는 평양차량수리공장의 로동계급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함흥제사공장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함흥 5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함흥제사공장창립 60돐기념보고회가 12일에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김성일 함경남도당위원회 위원장,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함흥제사공장 로동자들과 기술자,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함흥제사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이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하는 믿음직한 경공업기지이라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우리 인민들에게 비단옷을 입히시려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6(1957)년 5월 13일 함흥제사공장을 찾으시여 질좋은 비단실을 더 많이 생산하고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공장건물을 새로 번듯하게 일떠세울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이 끊임없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뜻깊은 날을 창립일로 제정해주시고 귀중한 설비들과 물전기재들도 보내주시었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립에서 앞장선 공장의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함흥제사공장이 창립후 지난 6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창조와 위훈으로 빛나는 자랑스러운 연혁을 새겨오면서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집체고운동과 집단적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비단실생산을 1.2배로 늘이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110%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생산건물들을 개건보수하고 수백종의 부속품, 기료품들을 국산화하여 생산장성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함흥제사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지배인 박혜숙의 보고에 이어 초급지명위원장 최인규, 직장장 한승일, 조사공 한미향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당의 경공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길이 빛내여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 더 많은 비단실과 비단솜을 생산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과 검덕의 영웅소대원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더욱 다그치며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설비,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어 공장을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공장으로 전변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고귀한 유훈 받들어 높은 생산성과를

강계돼지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자강땅 그 어디나 다 그러하듯이 현대적인 축산기지로 변모된 강계돼지공장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워야 하며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실천활동에 그대로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감격도 새로운 주체97(2008)년 1월, 북방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에서 자력으로 능력이 큰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살찐 돼지들이 우글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러워하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공장건설정형을 보러 왔다고 그들을 위안해주시면서 종자돼지들을 인민군대에서 보장해주도록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우량종의 원종돼지들을 실은 특별렬차가 련성되여 강계땅에 도착하는 눈물겨운 화복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의하여 사료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여 돼지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리영남, 오영일, 김룡일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높은 목표와 주도세밀한 작전을 세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종축체계를 바로세우며 수의방역과 사료보장, 물보장문제, 과학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현대적인 가공설비들을 단계별로 설치하기 위한 전투로 온 공장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끓어번졌다.

책임성이 높은 로동자들로 종축작업반대렬이 꾸려지고 종자돼지들의 운동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호동들의 개조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과학적인 종축체계가 세워진데 맞게 공장에서는 인공수정방법으로 한배에 낳는 새끼마리수를 높이기 위한 사업과 순종을 유지하고 3원교잡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이와 함께 방역을 라리와 공장구내도로를 새로 건설하였으며 자체로 신약들과 고려약들을 제조하여 새끼돼지폐사률을 결정적으로 낮출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장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기 위한 사업도 꾸준하게 밀고나갔다.

몇해이간에 잣나무, 종비나무, 가문비나무, 참대버드나무를 비롯한 10여만그루의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무성하게 자라 공장은 수림속에 잠기게 되였다. 여름에는 온갖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과일향기풍기는 무릉도원으로 전변되였다.

공장뒤산에 수백㎥나 되는 집수정을 건설하고 수십m의 언제를 쌓아 그 어떤 왕가물이 들어도 돼지사양관리와 경영활동에 필요한 맑은 물을 보장할수 있게 한것만 놓고보아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불같은 열의와 전투적인 일본새를 잘 알수 있다.

과학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것도 자랑스럽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많은 새끼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년간 새끼낳이률을 높이고 육성률을 95%이상 높이고있으며 겨울철의 낮은 온도에서도 돼지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도전자업무연구소의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사료처방과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감시조절할수 있게 하였으며 안전한 고기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그들은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밑에 공장의 경영업무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여 경영활동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오늘 강계돼지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사료공급으로부터 물공급, 돼지우리온습도조절 등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된 설비들로 그윽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축산기지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절세의 위인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고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새끼돼지들에 대한 사양관리와 영양먹이, 고려약먹이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30여일동안에 젖떼새끼돼지들의 먹성과 병견딜성을 높여주고있다. 또한 돼지들의 생리적특성과 몸질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배합먹이주기, 무리짓기를 잘하면서 짧은 기간에 마리당 무게가 100㎏이상 되게 키우고있다. 호동들에 있는 500㎏이 넘는 돼지들만 보아도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일욕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수 있다.

먹이가공작업반의 로동자들은 현대적인 먹이가공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대로 다루면서 배합먹이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배합먹이를 작업반들에 원만히 보내줌으로써 돼지고기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고있다.

오늘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현대적으로 변모된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이 도내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고기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김 순 홍

결사관철의 기상으로 동해기슭에 전변의 새 모습을 펼쳐간다

어랑군 일군들과 근로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의 북강변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조국의 북변 동해기슭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부흥의 지름길-수령의 유훈관철전

어랑군 읍을 지나 청진쪽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얼마쯤 달리느라면 건설속의 무릉도원을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마을이 한폭의 그림마냥 안겨온다.

화창한 봄계절을 맞아 온갖 꽃들이 활짝 피여난 진주덕기슭에 금모있게 들어앉은 산뜻한 문화주택들과 현대적으로 꾸려진 문화회관, 각종 편의봉사시설과 탁아소, 유치원…

오가는 길손들마다 감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는 두남리의 전변속에는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수령의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해나가는 어랑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일본새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지금으로부터 두해전 군안의 령도업적단위들에 대한 료해로부터 사업을 시작한 군당책임일군은 이 단위들을 본보기로 하여 군건설의 된바람을 일으킬것을 결심하고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일찌기 어랑군 두남협동농장을 몸소 찾으시여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벼랭상모판씨뿌리기와 비료치기를 잘하고 마을을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훌륭히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헌신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앞장에 서자!

이런 각오와 의지를 안고 두남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모두가 고향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전투에 떨쳐나섰다.

투쟁과 열정으로 들끓는 가슴벅찬 광경이 두남리의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졌다. 그들은 이미 있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에 대한 단순한 개건보수가 아니라 모든것을 일신시키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정중히 건립하고 수천m나 되는 솔라리공사를 진행하며 수십세대의 문화주택과 공공건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방대한 공사가 동시에 벌어졌다.

당면한 영농전투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사업을 밀고나가자니 로력은 물론 건설자재도 엄청나게 부족했지만 그들은 난관앞에 굴하지 않았다.

고명근, 김준호, 손태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낮에는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해 밭에서 살다싶이 하고 밤에는 밤대로 해불을 켜들고 건설전투를 벌리는 한편 강기슭을 훑다싶이 하며 부족되는 모래와 자갈을 해결했다.

군에서 자체로 마련할수 없는 건설자재가 제기되면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들이 도맡아 수십리 밤길도 주저없이 떠나군 했다.

땀흘려 투쟁한 보람이 있어 마침내 두남땅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을 때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물론 어랑군 사람들모두가 수령의 유훈관철전을 생명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란 없고 행복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를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두남땅의 전변과 함께 군안의 모든 령도업적단위들에서도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군당위원회에서 장연호에 자리잡고있는 양어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문제가 토의될 때였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군이 바다를 끼고있는 조건에서 양어장개건보수는 후날로 미루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의 결심은 단호했다.

양어에 유리한 장연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도록 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다.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는 선후차가 있을수 없다.

즉시 양어장개건보수를 위한 강력한 건설조가 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적표식비를 정중히 건립하며 사적전물인 알깨우기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종업원들이 국가망을 통하여 최신과학기술을 배울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오기원, 김철만동무를 비롯한 이곳 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양어장개건보수공사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북방의 찬바람이 불어치는 이른새벽 몸소 양어장에 찾아오시여 높이 평가하여주신 태장에 의한 그물우리식칠색송어기르기를 더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훌륭히 꾸려진 양어장에서는 올해 광명성절을 맞으며 군안의 수백세대 가정들에 칠색송어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 전초선이라고 말할수 있는 어랑천 5호발전소건설전투가 마감단계에서 벌어지고있던 지난해 3월이였다. 골재가 모자라 어랑군대대가 맡은 조압수조공사를 더 내밀수 없게 되였던 그때 녀명일군들은 군당위원회일군들앞에서 자기들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발전소건설은 군의 생명선이나 같고 군살림살이이자 곧 우리 때 가정의 살림살이이다. 수천명의 어랑군 녀명원들이 있어가지고 골재가 모자라 발전소건설에 지장을 준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골재는 넘려말라!

다음날부터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주남천의 골재채취장으로 매일 수백명의 녀명원들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혁명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결사전을 벌렸다.

맡은 과제를 끝내기 전에는 전투장을 뜰수 없다는 녀명원들을 위해 명절기념품과 지원물자를 한가득 싣고 골재채취장을 찾은 군당일군들이 함께 어울려 하루사이에 수백㎥의 골재를 생산해내고있을 때 그에 고무된 림전동무를 비롯한 어랑군대대 전투원들은 조압수조타입과 살림집건설일정계획을 200%이상씩 넘쳐 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

령도업적단위들을 비롯한 군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날마다 전변의 새 모습을 펼치고있는 고향땅의 자랑찬 현실을 놓고 오늘 어랑군 사람들은 누구나 긍지에 넘쳐 말한다.

바로 자기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무흠의 지름길이 있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절감한 증견자, 체험자들이라고.

당정책옹위전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

오늘 어랑군을 찾는 사람들은 읍지구를 가로질러 뻗어간 수천m의 도로를 보며 놀라움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수십년전에 건설한 낡은 아스팔트도로가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고 멋들어진 새 콩크리트도로가 펼쳐진것이다.

지난해 봄 군당책임일군에게는 가슴에 맺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읍지구를 지나다닐 때마다 도로의 상태가 가슴아프게 밟혀왔던것이다.

도로건설에 드는 엄청난 로력과 자재때문에 선뜻 결심을 내리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생각을 거듭할수록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서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가 더욱 굳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군자체의 힘으로 도로건설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명의 공로자들이 군당위원회를 찾아왔다.

그들은 책임일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로당원들은 자기가 밟고다닐 도로를 자기 힘으로 건설하기로 한 군당의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가 앞장에 서겠다.

당을 받들어 한생을 참답게 산 그들의 마음속진정은 일군들에게 큰 힘이 되였다. 공사에 필요한 세멘트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민위원회 책임일군이 수천리 먼길을 떠나고 군당의 호소에 읍지구 주민들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수많은 주민들속에서 부족되는 건설자재를 스스로 마련하는 애국적소행이 발휘되고 자기가 건설하는 도로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도록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기 위한 인민반별, 세대별경쟁열풍이 부는 가운데 어랑군에는 공사를 시작한지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포장도로가 번듯하게 뻗어나갔다.

도로건설을 통하여 귀중한 경험을 쌓은 군에서는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으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경치아름다운 무궁화기슭에 민물참게와 여러가지 민물고기를 대량생산할수 있는 종어장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호수가와 잇닿은 산기슭을 따라 수천㎡에 달하는 큰 10개의 야외양어못과 어려동의 생산건물, 종업원살림집을 건설해야 하는 공사는 토량처리만 해도 아름차고 세멘트와 모래를 수십리나 떨어진 곳에서 실어와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해야 하였다.

공사 첫날부터 현장을 다고앉아 화선식정치사업과 힘있는 지원사업으로 건설자들을 고무해주는 군당책임일군의 뒤를 이어 군급기관 일군들무려가 앞제를 메고 어렵고 힘든 과업들을 맡아해제끼였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건설자들은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제일 어렵다고 하던 수만㎥의 토량처리를 단숨에 해제끼고 련이어 기초굴착과 골조공사에 진입하여 종어장건설을 예정기일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는 자랑을 떨쳤다.

리충일동무를 비롯한 군의 기술집단은 피타는 사색과 탐구로 종어장을 현대적인 양어기지로 일떠세우고 인공적으로 실현시키기 힘들다고 하던 민물참게의 알깨우기에서 성공하여 수백만마리의 새끼민물참게를 무게호에 놓아줌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당정책옹위전을 떠밀어나가던 나날 과학자, 기술자들의 과학연구조건과 생활조건보장을 위해 바쳐진 노력과 헌신은 그 얼마였던가.

당조직의 사심없는 방조와 고무속에 군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벼재배방법이 연구완성되고 토양의 폐하와 염도, 일반사물을 과학적으로 측정할수 있는 농업용다기능천적측정장치가 개발된것은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 군이 이룩한 성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어랑군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편의 및 급양봉사시설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군내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찾는 길손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호평을 받고있다.

바다가기슭의 솔밭에 농민휴양소가 새롭게 일떠서고 안팎으로 절색인 온천원에서 하루일의 피로를 가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며 도시부럽지 않게 꾸려진 국수집은 이곳 특산물로 만든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넘쳐나니 어찌 나날이 번모되는 고향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지 않으랴.

물과 한두해사이에 이룩된 어랑군의 전변의 새 모습, 이것은 당정책옹위전에 승리의 열쇠가 있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지니고 끊임없는 창조와 투쟁으로 행복을 마련해가는 이곳 일군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빛나는 결정체이다.

* *

아직은 모든것이 만족하지는 못하다. 하기에 보다 휘황한 래일을 위해 더 빨리, 더 높이 비약하려는 어랑군 사람들의 열정과 각오는 비상하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이들의 투쟁에 의해 머지않아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더욱 아름답게 전변될 어랑군의 래일은 엄마나 흐뭇하고 가슴벅찰것인가.

본사기자 리남호
특파기자 리은남

사랑과 정성, 높은 자질을 지니고

남포시고려병원 의사 오정숙동무

예로부터 정성은 명약이라고 일러왔다.

오늘 우리의 의료일군들속에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성, 높은 자질을 지니고 치료예방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많다.

남포시고려병원 의사 오정숙동무도 그러한 의료일군들중의 한사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사, 간호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일군들이 혁명적동지애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환자치료에 최대의 정성을 쏟아붓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남포항 집함부두대의 온실에서 일하고있는 안금옥동무를 만나 감동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그는 몇해전부터 잔등과 옆구리부위의 아픔때문에 여러 진료소와 병원들을 찾아다녔으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채 진통제를 쓰면서 일하였다. 병증세가 그만큼 까다롭고 특수했던것이다. 그러던중 얼마후부터는 병이 너무 심해져 일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 되였다.

인민보안일군인 남편 리영철동무를 통해 환자에 대하여 알게 된 오정숙동무는 그날중으로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을 뚫고 안금옥동무가 일하는 온실로 찾아왔다.

구체적인 진찰을 한 오정숙동무는 피검사와 렌트겐검사를 한후에 치료대책을 정확히 세우자고 하면서 검사를 맡도록 하였다. 환자의 병이 흔치 않은 난치성질병이라는 예감이 들었던것이다.

검사결과는 그가 예측했던대로였다.

오정숙동무는 원장을 비롯한 의료일군들, 전문병원의 의사들과 함께 여러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치료대책을 세워나갔다.

환자의 상태는 일시 호전되는듯 했다. 그런데 재료육체계에 따라 평양에 올라가 공부하던 그가 등교를 마치고 돌아와보니 환자는 완전히반신마비가 오면서 옷신도 할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가늘어진 환자의 두다리와 병상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한 오정숙동무는 전문병원의 의사들과 진지하게 다시 협의하였다.

그러나 신통한 치료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수술치료외에 다른 방도는 없고 수술을 해도 마비를 완전히 풀다는 담보가 없다는 결론뿐이였다.

하지만 오정숙동무는 전통적인 고려치료를 배합하여 환자를 무조건 일으켜세울 굳은 결심을 가지고 치료에 달라붙었다.

그때부터 오정숙동무는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이후에 매일 환자의 집에 찾아오군 하였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면서 고려약처방을 내리였고 하루 1-2시간씩 치료에 전념하였다.

가정부인인 그가 이렇게 짬시간마저 환자치료에 바치느니 남모르는 고충과 가슴속에 묻어둔 사연인들 왜 없었겠는가.

하지만 오정숙동무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환자치료에 열중하였다.

병원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오정숙동무가 힘들어할세라 그의 치료활동을 적극 고무해주고 떠밀어주었다.

치료를 시작하여 10여일이 지나서부터 다리의 신경이 조금씩 살아났다. 오정숙동무는 신심을 가지고 더욱 극성스럽게 달라붙었다. 드디어 40여일만에 환자는 하반신마비를 풀고 거저적으로 일어섰다.

그 순간 환자는 눈물겹반, 웃음절반의 얼굴을 오정숙동무의 가슴에 묻었다.

그후 환자는 오정숙동무의 방조속에 운동을 배합한 회복치료과정을 거쳐 몇달후에는 대지를 활보하며 생의 활력을 되찾고 자기 초소에 다시 서게 되였다.

비단 안금옥환자만이 아니다.

오정숙동무로부터 극진한 치료를 받고 완쾌되여 감사의 정을 터놓는 사람들은 남포시에도 있고 황해남도에도 있다.

의료일군의 가정에서 나서 자라면서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뼈에 새긴 오정숙동무, 사랑과 정성 더하기 실력이라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헌신분투한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고 오정숙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현시기 당의 보건정책관철에서 의료일군들이 과연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더 잘 알게 되였다.

그렇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성, 높은 자질을 지니고 헌신하는 이런 보건일군들을 인민들은 존경하며 따르기마련이다.

특파기자 주창선

미풍의 화원과 밀거름

‖ 서포탄공장 초급당위원장 김성철동무에 대한 이야기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우고 우대해주며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포탄공장 초급당위원장 김성철동무에 대하여 알게 된것은 한 영예군인의 편지를 통해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일하고있는 영예군인 구준철동무가 보내온 편지였다.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글줄마다에서는 당의 뜻을 받들어 영예군인들을 위해 헌신의 자욱자욱을 묵묵히 새겨가는 참된 당일군의 진정이 뜨겁게 안겨왔다.

지난 1월초 어느날이였다. 하루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던 구준철동무는 문득 굳어졌다.

자기 가족들과 단란한 분위기속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는 낯익은 모습들이 안겨왔던것이다.

이미전부터 자기를 영예군인 서사선생이라고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던 서포탄공장 초급당위원장 김성철동무와 종업원들이였다.

언제부터 한번 와본다는게 이제야 왔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과하는 당일군의 목소리는 얼마나 뜨거웠던가.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정말 생각이 많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영예군인기술자의 집을 찾아왔다고 하면서 가지고온 텔레비존도 설치해주고 동작상태도 확인해주며 무상자리는 어떠한가, 아이들은 잘 크는가 다정하게 물어도 보는 모습은 꼭 친어머니의 모습그대로였다.

당일군을 뜨거운 눈물속에 바래워준 그날밤 구준철동무의 눈앞에는 그와 알게 된 때로부터 있었던 감동깊은 사실들이 떠올랐다.

구준철동무가 김성철초급당위원장을 알게 된것은 몇해전 서포탄공장의 설비현대화사업에 동원되였을 때였다.

그 나날에 영예군인이 불편한 몸으로 정말 수고한다고 하면서 수시로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영양식품도 안겨주며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던 당일군의 진정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날이 갈수록 영예군인을 위하는 김성철동무의 진정은 더더욱 뜨거워졌다.

광명성절을 앞둔 지난 2월 어느날 김성철동무가 또다시 영예군인의 집을 찾았다.

전번에 왔을 때 보니 식료품들을 신선하게 보관할수 있는 가정용품이 없는것을 보고 다시 왔다고 하면서 극동기와 보약, 식료품들을 안겨주며 혈육의 사랑과 정을 부어주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어 과학연구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여 영예군인박사가 되라고 콤퓨터도 안겨주었고 지난 3.8국제부녀절에는 영예군인의 친근한 김동무가 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는 그의 안해를 축하해주자고 하면서 지성어린 물자들을 안겨준 당일군, 병원에도 함께 가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도록 한 그 진정어린 모습에서 구준철동무는 영예군인들을 아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하기에 그는 편지에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집집마다에 웃음꽃이 피여나도록 밀거름이 되여주는 당일군의 모습에서 저와 우리 가정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당풍으로 내세운 어머니당의 고마움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새기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위대한 당을 위해 내 한생 혁명의 꽃을 더 붉게 피워가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준철동무의 심정만이 아니다.

서포탄공장의 영예군인 리남혁동무와 평양영예군인약품공장에서 일하고있는 변금철, 로선오, 송성일, 한영무동무들의 가슴속에도 서포탄공장 초급당일군의 뜨거운 진정과 이런 훌륭한 당일군을 키운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울수 있게 밀거름이 되여주는 이런 당일군들이 있기에 미풍의 화원, 일심단결의 대화원은 더더욱 만발하는것이 아니겠는가.

김혁철

중국에 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출발

【평양 5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김영재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중국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지대, 하나의 길》국제협조에 관한 수뇌지역단에 참가하기 위해 1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구본태대외경제성 부상과 주장정 주조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전송하였다.

꽃은 계속 피여난다

온갖 꽃이 만발하는 이 계절에 금야영예군인일용품공장의 면모도 더욱 산뜻해졌다.

공장구내의 화단에 갖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피여난 풍경은 지난 기간 하나부터 열까지 자체의 힘과 지혜, 자기들의 땀으로 창조의 씨앗을 심고 가꾸며 혁신을 일으켜온 이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깐진 일솜씨를 엿볼수 있게 하였다.

이들이 생산하는 각종 규격의 비닐관과 비닐박막, 형태와 모양이 다양한 여러가지 용도의 가정용비닐제품들이 어떻게 되여 금야군뿐만이 아닌 주변군 인민들에게서까지 호평을 받고있는지 우리는 공원속에 들어앉은 공장의 구내길을 걸으면서도 느낄수 있었다.

일 잘하는 혁신자들은 생활도 정서적으로, 락천적으로 꾸려나가기마련이다.

아름다운 정서가 넘치는 생활을 떠나 어찌 사업에서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으랴.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혁신적성과속에는 바로 생활을 사랑하고 자기 일터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깃들어있는것이다.

금야영예군인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렇듯 자연의 꽃과 함께 마음속에 혁명의 꽃도 함께 피워가고있었다.

본사기자

우륜소학교에서—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대동강구역 김광림 찍음

교수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배낭식광폭미립분무기 개발

강서분무기공장에서

저는 중구역 경상동 1인민반에서 사는 로력영웅인 권순희전쟁로병의 며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을 든것은 평양아동백화점의 종업원들을 널리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

아시다싶이 저의 시어머니는 영예군인시인 김시권선생님의 안해입니다.

그들이 평양아동백화점 3층 작업반원들과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37년전 어느 명절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날 이들은 꽃가지 보약들과 생활용품들을 안고 찾아와 노래도 불러주고 시랑송도 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이제부터 자기들이 전쟁로병부부의 친자식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들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아마도 박철숙, 황금순, 리용숙, 김성희, 박문영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오랜 세월 전쟁로병부부를 위해 바친 진정을 하나하나 글줄로 엮는다면 무려 두툼한 장편소설이 될것입니다.

때없이 찾아와 시어머니와 무릎을 마주하고 따뜻한 정을 부어주군 하는 초급당위원장 박영애동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이겠습니까.

그들도 한가정의 주부이고 어머니들입니다. 인민의 봉사자들인 그들에게는 휴식날, 명절날도 따로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오랜 세월 한모습으로 전쟁로병들을 위해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이런 미풍은 오직 사회주의 우리 사회에서만 꽃펴날수 있는 감동깊은 이야기인것입니다.

바로 이런 참된 인간들이 전쟁로병부부의 친자식이 되고 혁명동지가 되였기에 영예군인시인이라는 세상에 없는 부름이 태여나고 그와 일생을 같이한 평범한 녀성이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으로 될수 있은것 아니겠습니까.

30여년세월 사회주의화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온 평양아동백화점의 종업원들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소개해주십시오.

중구역 경상동 1인민반
림송이

독자의 편지

로병의 딸들을 널리 자랑해주십시오

강서분무기공장에서 미립분무기에 비해서는 4배정도로 능률이 높다.

실례로 한사람의 로력으로 40분정도면 한정보의 론전에 대한 분무작업을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분무되여나오는 용액의 립자들이 매우 미세하고 균일하기때문에 많은 농약과 비료를 절약하면서도 그 효과를 높일수 있다.

종전에 리용하던 배낭식수압분무기로 한정보의 논에 농약을 뿌리자면 적어도 500L이상의 물이 있어야 하였는데 접이식틀에 여러개의 회전원반식미립분무장치가 설치된 이 분무기로는 30L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따라서 종전보다 농약을 1/3로 줄여도 농약의 농도는 몇배나 높아 농작물비배관리에서 우월하다.

천리마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농사에서 배낭식미립분무기로 콩밭에 잎덧비료주기를 3~4번 하고도 종전의 배낭식수압분무기로 7번 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강서구역 보산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도 배낭식미립분무기를 리용하여 많은 로력과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정보당 700-900㎏의 밀보리를 증수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놓고볼 때 배낭식미립분무기보다 더 우월한 배낭식광폭미립분무기는 얼마나 능률적이고 실리적이겠는가.

더우기 눈길을 끄는것은 해당 작물의 키에 따라 분무장치의 높이와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할수 있어 논은 물론 비탈밭이나 양묘장같은데서도 널리 리용할수 있다는것이다.

강냉이생육후반기 개꼬리카나오는 시기에도 잎덧비료주기를 할수 있게 제작되였다.

지배인 리효우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과 우리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농기계를 적극 개발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분무기의 능률을 보다 높여 농업근로자들의 알곡생산투쟁에 크게 이바지할 목표밑에 생산자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그들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농촌기계화의 전초병이라는 본분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은 이들로 하여금 하루빨리 이 분무기를 개발완성하려는 일념으로 심장이 뛰게 하였다.

설계를 맡은 방현일, 형타카공을 담당한 최헌철, 리금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회전원반식미립분무장치와 여러 중요부분품제작에서 제기되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자강력으로 해결하였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방조와 공장기술집단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새형의 분무기가 짧은 기간에 개발완성될수 있었다.

이들의 현장시험과정을 지켜본 농업부문의 일군들속에서는 이 분무기를 하루빨리 자기 단위에 받아들이려는 열의가 높아가고있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사슬공정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을 더욱 완비하여 배낭식광폭미립분무기를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이런 투쟁기풍이 체육강국의 래일을 앞당긴다

모범체육시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가는 덕천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범체육군, 모범체육단 위칭호쟁취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체육협간사업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덕천시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체육시설들을 그윽하게 꾸려놓고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최근년간 인민체육대회와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들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월봉산체육단을 비롯한 전문체육부문의 선수들이 여러 국내경기들에서 많은 금메달들을 쟁취하여 모범체육시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고있다. 하다면 덕천시 체육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체육열풍과 정신력발동

지난해에 덕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시의 면모를 높은 수준에서 일신시켜나갈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진두를 벌렸다. 살림유원지의 물놀이장과 뽀트장건설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조약대를 비롯한 물놀이시설들과 각종 봉사시설들을 갖추어놓아야 하는 이 공사는 시에서 지난 시기에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 방대한 과제였다. 하지만 시책임일군들은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훌륭하게 꾸려놓는 사업을 시의 모든 일군들속에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고 무엇보다 큰 관심을 돌렸다.

물놀이장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날 이른아침이였다.

현장을 돌아보던 시당책임일군은 모든 공사일정이 계획대로 진척되고있는것이 눈에 띄게 알렸지만 건두원들의 기세가 어딘가 모르게 좀 떨어진감을 느꼈다. 물론 방송선전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 등으로 건두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한 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고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듯싶었다.

시당책임일군은 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건두원들속에서 체육경기를 한번 본때있게 진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무심히 대할수 없는 의견이였다. 일제의 폭압이 심하고 정세가 엄혹한 속에서도 체육경기를 조직함으로써 유격대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고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겨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옥동골에서의 축구경기에 대한 잊지 못할 이야기가 다시금 가슴을 쳤다.

건두목표에 제시된대로 최단기간내에 물놀이장과 뽀트장건설을 완공하기 위해 건두원들이 낮에 밤을 이어 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체육경기를 조직할 시간까지 얻어낸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책임일군은 시적인 체육경기를 조직할것을 결심하였다. 즉시 필요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시인민위원회 부장 전경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다가오는 5.1절에 진행하게 될 큰 규모의 체육경기조직사업에 전심하였다.

모든 단위들이 특색있는 체육경기준비사업으로 부글부글 끓었다.

드디여 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시안에 체육열풍이 차넘치고 지난 시기에는 경기때마다 서로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승벽내기를 하던 단위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달려고달려 우승의 영예를 다같이 지니는것과 같은 이채로운 광경들이 련이어 펼쳐져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다.

체육경기의 의의와 생활력은 참으로 컸다. 시안의 모든 단위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사기가 더욱 충천해지고 물놀이장과 뽀트장건설에서도 예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도적으로 손꼽히는 시축구팀의 주력을 이루는 시국토환경보호관리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축구경기에서 우승한 신심높이 조약대건설에서 혁신을 이룩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시자동차사업소의 종업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도입하여 골조공사를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시인민위원회에서는 정각건설을 맨 먼저 끝내기 위한 줄기찬 진두를 벌려나갔으며 시검찰소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되고있던 전망대건설을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총발동하여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도에서 널리 알려진 덕천시녀자롱구팀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시상업관리소종업원들의 열의도 대단하였다. 소장 박금숙동무는 대다수 종업원들이 녀성들이지만 체육도 잘하고 건설에서도 절대로 뒤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군사복무시절에 체질화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뽀트기재실컨설을 다른 단위들이 깜짝 놀랄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척시켜나갔다.

시녀맹원들도 체육경기를 계기로 더욱 강해진 집단의 단결력을 뽀트장건설에서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리하여 매우 불리한 공사조건에서 토방은반과 석축공사를 본때있게 내밀면서 숲동유원지건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시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세차게 일으킨 체육열풍과 더불어 이룩된 성과를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시당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시적으로 놓고볼 때 해야 할 사업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할 일이 많을수록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것이 체육사업입니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체육열풍을 고조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이야말로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더욱 발동하는 중요한 정치사업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일군들이 이런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앞장에서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기에 온 시가 날마다 체육분위기로 들끓고 그와 더불어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은 더욱 고조되고있는것이다.

체육열풍과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

덕천시에 대한 위대과정에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끈것은 곳곳에 체육시설들이 그윽히 갖추어져있는것이였다.

체육관과 경기장, 수영관이 갖추어져있고 공원과 유원지들마다에 로라스케트장을 비롯한 야외체육시설들이 훌륭하게 꾸려져있으며 시안의 매 단위들에서도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체육기재들을 충분히 구비해놓고있는것만 보아도 그러했다.

이 모든것은 체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을 대중의 체육열의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의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여기에 큰 힘을 넣은 덕천시 일군들의 적극적인 사업기풍과 주인다운 일본새가 안아온 응당한 결실이다.

시적으로 제일먼저 모범체육단위의 영예를 지닌 신덕탄광에는 오래전부터 배구장이 꾸려져있었다. 날마다 배구장에서는 여가시간에 일군들과 탄부들이 배구훈련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러던중 언제인가 배구장에 조명등이 설치되였다. 이것은 3교대로 일하는 탄부들이 편리한 시간에 배구를 마음껏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배인 박철원동무를 비롯한 탄광일군들이 착상한것이였다. 얼핏 보기에는 별로 큰 문제같지 않지만 그만큼 탄광의 실정에 맞게 체육열풍을 끊임없이 일으키기 위해 늘 머리를 쓰며 이악하게 실천해가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가 비껴있는 배구장의 조명등이였다.

탄부들이 무척 좋아하였다. 교대전이나 퇴근후에 날이 어두워도 마음먹은대로 배구를 할수 있었던것이다. 하여 탄부들의 체육열의는 더욱 높아졌으며 그것은 그대로 증산열풍으로 이어져 석탄생산에서는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였다. 그런즉 조명등까지 설치된 배구장은 대중을 혁신창조에로 떠밀어주는 또 하나의 밑천으로 되였다.

이 사실이 모든 단위 일군들에게 준 충격은 컸다. 그때부터 일군들속에서는 꿈을 들어 체육시설을 더욱 훤만하게 갖추어놓기 위한 열의가 부쩍 높아졌다.

시향정사업소일군은 다른 지방에까지 가서 해결해온 질좋은 나무를 가지고 널뛰기기재를 만들어놓았으며 또 어떤 단위에서는 좁은 부지면적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탁구장도 꾸려놓았다.

시책임일군들은 자신들이 앞채를 메고 본보기를 창조하는것으로 온 시안에 체육시설들을 훌륭하게 갖추기 위한 경쟁열풍을 일으켰다.

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된 사실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시당책임일군은 청소년체육학교개건보수와 관련한 형성안작성부터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자재보장대책까지 면밀히 세운 다음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가지고나와 후방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면서 건두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그 나날 그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체육시설들의 건축학적요소들에 대한 연구로 밤을 밝힌적은 또 얼마였던가.

이렇듯 책임일군들이 하나를 해놓아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본보기가 되도록 요구성을 높이니 시적인 체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에서 어떤 건진이 이룩되였겠는가 하는것은 물보듯 뻔한 일이다.

도처에 체육시설들이 멋들어지게 꾸려지는것과 동시에 시에서는 체육열풍이 더욱 세차게 불어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강안동 22인민반에서 배구장을 꾸려놓고 나이별, 세대별배구경기를 자주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모두가 더욱 단합되여 인민반사업이 보다 활기를 띠고 진행되게 된것을 불씨로 하여 모든 동, 인민반들에서도 대중체육사업이 적극적으로 벌어졌다.

온 시에 이렇듯 드높은 체육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운흥협동농장의 한 농장원이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그네뛰기명수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였으며 은덕유치원에서는 김성희동무를 비롯한 교양원들의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주정임, 리미록 등의 어린이들이 미래의 바둑강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다.

이렇듯 체육열의가 나날이 고조되는 속에 체육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전문체육부문에 대한 후원열의 또한 끝없이 분출되였다.

시책임일군이 영예군인의 딸인 시청소년체육학교 반마라손선수를 직접 맡아가지고 경기와 훈련보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마련해주었을뿐이니라 선수와 달림길 전구간을 함께 달리며 신심을 북돋아주었다는 이야기는 온 시에 후원열풍이 얼마나 세차게 일어번지는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된 남편을 따라 덕천땅에 와서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으로 성장한 제대군관인 홍윤옥동무, 그는 최전연에서 집집승을 많이 길러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온 그 정신으로 체육단선수들의 훈련과 경기일정들을 일일이 알아보고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도맡아 해결해주면서 체육후원사업에 열정을 바치였다.

공화국기를 휘날리는 세계적인 강자대렬에 우리 덕천사람들도 꼭 세우고싶다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선수들에 대한 후원사업을 더 잘해갈 결심이라고 하며 덕천은하피복공장 지배인 리금희동무도 체육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이런 불같은 열의는 시안의 많은 단위 일군들속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렇게 시적인 체육후원사업은 더욱 경쟁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이런 고결한 애국의 열정에 받들려 월봉산체육단과 시청소년체육학교에는 온실, 집짐승우리, 양어장 등이 훌륭히 꾸려져 감독, 선수들에 대한 후방물급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이와 함께 체육과학연구사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람은 지난해에 진행된 제20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1등으로 평가되였다. 또한 덕천시에서는 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많이 키워내여 중앙과 도의 여러 체육단들에서 활약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 체육명수들도 배출되게 되였다. 그리고 시, 군대항경기들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종목들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우리 조국을 체육으로 명성을 떨치며 체육으로 흥하고 강대해지는 나라로 더욱 빛내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선두에서 달리는 덕천사람들의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또 얼마나 환희로울것인가.

시안에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사업도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소리 높이 울리며 당의 체육정책관철에서 앞장서 달리고있는 일군들의 선구자적역할, 이 고장에 차넘치는 뜨거운 애국의 열의에 의하여 머지않아 덕천시에서도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체육강자들이 배출되리라는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위대길을 계속 이어갔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혁철

◎ 소백수골8경 ◎

끝없이 이어지는 답사행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량강도에는 혁명전적지가 많고 김정일동지의 생가도 있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수많이 찾아오고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성지로 불리우는 곳도 적지 않고 그곳을 순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조선혁명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고 그 명맥을 이어주고 지켜주는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소중히 품어안고있는 소백수골과 같은 혁명의 성지는 없으며 답사행군대오가 사철 대하를 이루고있는 성지는 더욱 없다.

붉은기를 대오앞에 펄펄 휘날리며 혁명의 성지를 찾아 끊임없이 흐르는 답사행군대오의 장쾌한 모습은 소백수골을 더욱 뜻깊게 장식하고있다.

새싹이 움트고 록음이 우거지는 봄과 여름은 물론 백설이 온 골안을 뒤덮고 기온이 영하 수십℃까지 내려가는 혹한이 계속되는 겨울철에도 소백수골을 찾는 답사행군대오의 거세찬 흐름은 멈춤이 없다.

백두산밀영고향집과 소백수가를 비롯하여 백두의 맑은 정기가 차넘치는 소백수골의 그 어디에 가나 천만군민의 사상과 정신을 끝없이 정화시키고 혁명적신념을 억세게 벼려주는 태양의 성지를 찾아 달려온 충정의 대오가 파도쳐흐른다.

그 대오속에는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쥔 인민군군인들도 있고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로동자, 농민들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과학자, 기술자들도 있으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던 투사들의 그 넋을 심장에 포아박으며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청년들과 붉은넥타이를 목에 두른 소년단원들도 있다.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답사행군대오의 격동적인 모습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갑무경비도로를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방불케 한다.

주체45(1956)년 6월 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앞장에서 개척하신 답사행군길을 따라 백두산밀영고향집광스러운 세대들의 뒤를 이어 오늘은 수천수만의 혁명의 새세대들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빨찌산가요, 새 세기의 혁명가요인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높이 부르며 어디서나, 어느때나 태양의 성지 백두산으로 달려가고있다.

주체76(1987)년 2월 백두산밀영이 개영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소백수골을 찾은 답사자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주체103(2014)년 10월 몸소 백두산에 오르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전체 군대와 인민이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정신적기둥으로 삼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천명하신 그때로부터 태양의 성지에로 향한 답사행군대오는 더욱 대하를 이루었다.

실로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혁명가요를 씩씩하게 부르며 아름드리나무들이 문주처럼 서있는 소백수여울목을 지나 정일봉기슭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끊임없이 찾고찾는 답사자들의 행렬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명세의 대하인것으로 하여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장관중의 장관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여가는 그 길에 최후승리가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기에 우리 천만군민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끗끗이 이어나가며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령마루에로 더 빨리 비약해갈것이다.

사회과학원 실장 장은일

방문기

자력자강의 숨결 높뛰는 일터

황해북도첨단기술제품제작소를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최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것으로 연구도입할수 있다는 신념과 배심을 가지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황해북도첨단기술제품제작소에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았다.

우리와 만난 소장 봉문철동무는 2층으로 된 건물정면에서 유난히 빛을 뿌리는 제작소마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였다.

《저 마크에는 우리 제작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향이 반영되여있습니다. 타원형의 띠안에 선반의 동체를 형상한 모형, 금강석을 형상한 모형이 들어있는 저 마크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경제적실리를 안아온다는 뜻을 담고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나서 마크를 다시금 바라보니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과학기술로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있게 추동해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는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의 미더운 모습이 한눈에 안겨오는듯싶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제작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제일먼저 본 설비는 전국의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여 호평을 받고있는 능동형전기보이라였다.

국내특허와 국제특허를 받은 이 능동형전기보이라를 생산현장이나 편의봉사시설에 도입한 단위들에서 보내온 편지들도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종전의 전기보이라에 비해 전력소비를 지의 절반이나 줄이면서도 최대로 열효률을 높일수 있고 또 부피가 작아 보이라설치를 위한 건물을 따로 지을 필요도 없기때문에 아주 실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겨진 편지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인민의 응당한 평가였다.

실용성이 높은 이 설비외에도 제작소에서 연구개발한 가치있는 첨단기술제품들이 도안의 많은 단위들에 도입되여 호평을 받고있다는 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동화장치실에 들리였다. 마침 거기에서는 실장 김학성동무와 기술자들이 이미 도안의 여러 단위에 도입한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집체적토의를 진행하고있었다. 그들은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에 남새를 키우는데 유리한 상태를 자동조종할수 있게 하는 보조장치를 더 달아주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치고있다고 말하였다.

도안의 시, 군양보장들에 태양빛전지에 의한 양수동력체계도 이들이 도입하였다는 소장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에 대하여서도 물어보았다.

《사실 그것은 도당위원장동지가 착상한것입니다. 언젠가 도당위원장동지가 우리들에게 수입산 설비를 보여준적이 있었습니다. 도당위원장동지는 그 설비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조해야 한다고 저희들의 머리를 되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빛전지관에서 나오는 전기를 임의의 전동기에 쓸수 있게 설비를 개조하여 그것으로 물도 퍼내고 필요에 따라 선반도 돌릴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떤 최첨단과학기술이라도 우리의것으로 연구도입할수 있다는 신념과 배심을 가지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는 이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선구자들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지 않는가.

이어 우리는 제작소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는 정금성, 리명학동무들도 만나 또 다른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사리원육아원과 애육원에 지열랭난방체계를 도입한 이야기,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한 이야기, 례성강청년3호발전소의 자동조종체계완성에 기여한 이야기…

그 하나하나의 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첨단을 돌파하며 끊임없이 전진하여온 이들의 긍지높은 투쟁기록이고 값높은 위훈의 자욱자욱이였다. 그래서 더욱 정이 가는 일터, 어디를 들려보아도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는 일터였다.

우리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가는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더 큰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안고 제작소를 나섰다.

본사기자 백성근

새 기술소식

조림효과를 높이는 물고기비늘모양땅다루기방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조성, 보호와 관련한 세계적인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나라에서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들의 산림조성에서 물고기비늘모양땅다루기방법을 적용하여 조림효과를 높이고있다.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척박한 지역들에서는 강수량이 적고 비가 내려도 거의다 흘러내려 토양물기함량이 매우 낮으며 이것은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지 못하는 주요원인으로 되고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립지조건에 따라 수평고랑식, 수평계단식, 반태경사계단식 등 일명 집수조림기술이라고 하는 여러가지 땅다루기방법들을 적용하여 나무사름률을 높이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땅다루기방법들은 토공사량이 많아 로력과 자금이 많이 들뿐아니라 시공과정에 넓은 면적의 산림피복층을 벗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근에는 일부 산간지역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해오던 물고기비늘모양땅다루기방법에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물고기비늘모양땅다루기방법은 비탈조림대상지에서 등고선을 따라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물이 흘러들수 있도록 반달형구뎅이들을 파고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서 구뎅이들을 판 조림지의 평면도를 보면 마치 물고기비늘모양을 띤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나무심기방법과는 달리 긴 직경이 80㎝이상 되는 반달형으로 구뎅이들을 파면서 앞록에 흰흙을 따라 물막이턱을 만들어주어 지표면으로 흘러내리던 비물이 구뎅이들에 고이게 함으로써 산림토지를 보호하면서도 비물을 저축하여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산림조성에서 물고기비늘모양땅다루기방법을 받아들이면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고 생장을 촉진시켜 산림의 목재생산성을 높일수 있다.

물고기비늘모양으로 구뎅이를 파면 물저축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림지전반의 토양물기함량이 많아져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다. 뿐만아니라 산림토지의 영양성분함량을 높이고 미생물생태조건을 개선하여 나무의 생장을 촉진시킨다. 또한 이 방법은 다른 땅다루기방법들에 비하여 시공이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뿐아니라 산림생태계를 빨리 회복할수 있는 등 여러모로 좋다고 한다.

본사기자

사격경기의 발전추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격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격경기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세부종목경기들의 기록이 만점 혹은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오르게 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경기규칙과 과녁이 부단히 갱신되였다.

국제사격스포츠련맹은 1985년에 새로운 경기규칙들을 제안하고 시범적으로 도입하다가 1989년에 또다시 갱신하여 변경된 규칙에 따라 국제사격경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최근년간 련맹에서는 매해 8차례의 세계컵사격경기를 조직진행하고있으며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이후 2013년부터 보총, 권총종목들에서 승자전결승경기체계를 도입하였다.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이후 2017년부터 또다시 결승경기진행방법과 일반규칙들을 수정하고 보총, 권총종목의 결승경기에서 종전의 20발쏘기대신 24발쏘기를, 날치기종목에서 승자전결승경기체계를 적용하는 동시에 경기결과들을 즉시에 현시하고 평가할수 있는 기술을 널리 도입하고있다.

선수들이 보다 높은 난도의 기술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날치기참호대사격목표의 비행거리를 70~80m로부터 75~80m로 하고 쌍발참호대사격목표의 비행거리는 50m에서 55m로 늘이였으며 원형대사격에서는 4차지쌍발사격을 도입하였다. 보총과 권총종목들에서도 지난 시기의 승자전결승경기체계에서 총탄수를 늘여 경기난도를 더 높였다.

렵총탄연알의 무게가 점차 줄어들었는데 처음에는 32g이던것이 1988년에는 28g, 1989년부터는 24g으로 되였다.

그리고 소구경보총사격목표는 1958년까지는 10점직경이 20㎜였는데 그이후 12.4㎜로 줄이였으며 1989년부터 10.4㎜로 더 축소하였고 공기보총사격목표의 10점직경의 크기는 1㎜로부터 0.5㎜로, 공기권총사격목표의 10점직경은 11.5㎜로 줄이였다. 목표의 규격이 달라지지 않고있는것은 50m권총종목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사격경기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사격의 과학화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기계들이 부단히 갱신되고있다. 기계식목표가 전자식으로 교체되였으며 전자자동심판기가 도입되고있다. 전자방이쇠가 도입되고 카스총이 압축공기식무기로 바뀌였다.

올림픽경기대회 사격경기에 포함된 15개의 세부종목경기들중에서 날치기사격세부종목들의 경기가 인기를 끌고있다.

사격협회 부서기장 박영래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풍치

콜리비시아지역의 《화산섬》—사모아

태평양의 남서부, 폴리네시아의 서부에는 화산이 많은 지대로서 《화산섬》이라고 불리우는 나라 사모아가 있다. 사모아의 특색있는 풍경은 바다가에 동굴들이 형성되여있는것이다. 이 동굴들은 입구의 직경이 1~2m되며 굽바닥은 바다와 잇닿아있다. 일단 바다물이 밀려들 때면 사나운 파도가 일어 기슭을 덮친다. 그리고 밀물이 동굴안으로 밀려든다. 이때 바다물이 동굴입구로부터 분출되면서 최고 80여m에 달하는 물기둥이 형성되고 요란한 소리를 낸다. 태풍이 일 때면 물기둥의 물이 20~30m밖에까지 흩날린다.

《샘물의 섬》으로 불리우는 저메이커

저메이커는 꾸바의 남동쪽 까리브해상에 위치하고있는 섬나라이다. 저메이커는 풍치가 아름답고 기후도 사람들에게 알맞춤하다. 이 나라에는 샘이 많은데 그것은 독특한 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오랜 기간 비물에 씻기운 석회암고원에는 동굴과 수직굴들이 벌둥지처럼 수많이 생겨났는데 어떤 수직굴은 깊이가 130여m나 된다. 또한 해양성기후로 하여 년평균강수량이 2 000㎜정도에 달하며 많은 비물이 석회암층의 동굴로 흘러들어가고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 비물은 맑은 샘물로 되여 석회암밖으로 뿜어져나오고있다. 이런 샘물이 흘러서 이룬 크고작은 강이 수백개나 있다. 어떤 강은 높이가 40여m, 너비 60여m나 되는 폭포를 형성하는데 그 밑에 수많은 작은 폭포들까지 생겨 매우 아름다운 자연풍치를 펼쳐보인다.

본사기자 주령봉

극악한 살인악당들을 무자비하게 박멸할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은 우리의 긍지이고 영예이며 생명이고 삶의 전부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 가장 존엄높은 생활, 가장 강위력한 국력이 바로 우리의 최고존엄과 잇닿아있기에 천만군민은 감히 그를 해치려는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위용에 기접한 적대세력의 최후발악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가운데 미중앙정보국과 괴뢰정보원의 살인악마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칠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생화학테로음모를 꾸민 사실이 폭로되였다.

우리의 영원한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이 전대미문의 극악한 음모를 만천하에 폭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에 접한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솟구치는 증오로 하여 용암처럼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무적의 총검 번뜩이는 천리방선전호들이 원쑤격멸의 의지로 불덩이같이 달아올랐다. 천만산악도 결사옹위의 성벽으로 더 높이 솟구치고 동서해 푸른 물도 분노의 깊기를 날리는 이 땅 그 어디서나 특대형국가테로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기어이 찾아내여 징벌하자는 웨침이 활화산처럼 터져나오고있다.

이 땅의 풀 한포기도 살점처럼 지켜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을 해치려는 불당종들을 어찌 용서할수 있겠는가. 분노는 하늘에 닿고 참을성은 한계를 넘어섰다. 미국과 괴뢰들의 엄중한 국가테로음모에 격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테로의 총본산인 원쑤들의 소굴을 생존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을 정의의 반테로타격전에 용약 궐기해나서고있다.

지금껏 미제는 《테로지원국》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에게 《테로》의 감투를 씌잘씌우군 하였다. 괴뢰패당도 상전의 나발에 맞장구를 치면서 찍하면 《북의 랍치, 테로기도》가 어쩌니저쩌니 하고 지어 《국제테로조직과의 련계》니 뭐니 하는 실로 터무니없는 악담까지 늘어놓군 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극악무도한 테로원흉으로서의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흉악한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특대형생화학테로음모를 단순히 국가주권의 대내적안건에 대한 불순적대세력들의 있을수 있는 침해행위로 볼수 없다.

우리 인민모두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의 기둥, 우리의 영원한 태양을 가리워보려는 가장 악랄한 도전이고 선전포고이다. 그것은 또한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대조선적대시정책, 반통일대결책동의 필연적산물이며 그 최절정이다.

지금껏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헐뜯는 적대세력들의 특대형도발행위들이 한두번만 감행되지 않았다.

《동까모》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화약내풍기는 북침전쟁연습장들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행위, 평양을 비롯한 우리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징증히 모셔진 수령영생, 수령칭송의 기념비들에 대한 《미싸일정밀타격》흉계, 《참수작전》과 《집무실정밀타격》흉련 등은 그 하나하나가 인간의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고안해낼수 없는 천하무도한 불망나니짓이였다. 하지만 이번 생화학테로음모와 같은 극악한 행위는 처음이다. 이것은 원쑤들의 망동이 도를 넘고 한계를 벗어나 더이상 참을수 없는 극단의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최고존엄을 감히 해치려는 천인공노할 음모책동으로 원쑤들은 사실상 북침전면전쟁의 불을 달았다.

태양을 가리워보겠다는 개꿈을 꾸는 범죄자들을 단 하루, 단 한시도 살아숨쉬게 할수 없다. 지구를 통채로 발가내서라도 이번 특대형국가테로음모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이 그 어디에 숨어있든 마지막 한놈까지 깨깨 잡아내여 정의의 무쇠주먹으로 무자비하게 족탕쳐버려야 한다.

살인마들이 둥지를 틀고있는 모략의 본거지들을 들어내지 않는 한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리는 제2, 제3의 특대형범죄가 또다시 시도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미중앙정보국과 괴뢰정보원은 반공화국모략의 본거지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천인공노할 《동까모》사건도,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과 삐라살포놀음,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범죄도 다름아닌 이 소굴에 들어박혀있는자들에 의해 감행된것이다.

이번에 저들의 특대형생화학테로기도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두손모아 제발 잘못했다고 빌어도 씨원치 않을 판에 도리여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무근거》하다느니, 《대응책마련》이니 하며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다.

가장 비렬하고 잔악한 특대형테로집단인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정보모략기구들을 철저히 박멸소탕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미중앙정보국과 괴뢰정보원을 비롯한 모략의 소굴, 악의 근원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우리 식의 반테로타격전은 다발적으로 강도높이 진행될것이다.

특대형테로행위를 고안해낸 무엄하기 짝이 없는자들에게는 경고도 필요없다. 가증스러운 원쑤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우리의 타격은 임의의 시각에 예고없이 가해질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절사옹위하는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의 최고존엄과 제도, 인민을 감히 해치려드는자들은 그 어디에 있든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

우리는 천하무도한 살인마들에게서 사죄따위는 바라지도 않는다.

오직 복수의 불벼락으로 죄악의 무리들을 쓸어버림으로써 사죄문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만들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한대로 가증스러운 모략의 소굴들을 흔적도 없이 짓뭉개버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자들을 더는 살아숨쉬지 못하게 할것이다.

이번 특대형범죄를 고안해낸자들은 똑똑히 알아두라.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자비한 타격을 피할 자리가 이 하늘아래 없으며 천만군민의 심장에서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증오의 불길을 피할 곳이 이 지구상에 없다는것을.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이라는 말만 들어도 증오와 복수의 피가 끓어오르는 우리 천만군민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세계는 곧 알게 될것이다.

바야흐로 최후결판의 시각은 다가오고있다.

백두산총대가 분노의 격동상태에 있다. 원쑤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가 우리가 틀어잡은 총대에 서리발치고있다.

분노에 치떠는 우리의 천만군민은 천하에 못된것만 골라하는 가증스러운 악당들을 씨종자도 남김없이 모조리 박멸소탕해버릴것이다.

허 영 민

력사의 수레바퀴는 돌려세울수 없다

민심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있는 괴뢰보수패당이 저들의 처지도 모르고 헛된 꿈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진 보수세력을 다시 규합해보려고 발광하고있다. 그것은 이번 괴뢰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뚜렷이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선거를 통해 떨어져나갔던 보수떨거지들을 긁어모으고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를 물고 날뛰였다.

이 반역당의 《대통령》후보였던 홍준표는 《보수대통합으로 친북좌파세력을 청산하자.》고 피대를 돋구며 보수세력들을 걸어쥐려고 허덕버쳤다. 이자는 《선거압승을 위한 용서》와 《보수대통합을 위한 큰 정치》따위를 운운하며 《특별지시》라는것을 강압적으로 내리먹여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을 비롯한 친박계의 악질보수거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제시켰다.

그리고 도망병들인 《바른정당》의 비박계 탈당파의원 12명을 복당시키는 놀음까지 벌려놓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량배친박》이니, 《배신자》니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배척하던자들을 제면이고 뭐고 다 헤던지고 닥치는대로 그러모은것이다.

한편 《박사모》니, 《엄마부대》니 하는 국우보수단체의 떨거지들도 《친북좌파에게 운명을 맡길수 없다.》느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다.》느니 하고 헤쳐대면서 《자유한국당》주위에 몰려들고있다.

금하면 부처다리를 안는다더니 파산몰락의 가련한 운명에 처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친박, 비박을 가리지 않는것은 물론 지어 인간추물들로 락인된 보수깡패들에게까지 손을 뻗치며 세력을 확장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것은 민심의 준엄한 사형선고를 받은 산송장들을 긁어모아 력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보려는 필사적몸부림으로서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사태는 괴뢰보수패당이 보수세력규합소동으로 과멸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미친듯이 허덕비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의 망동은 남조선의 광범한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악랄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바이지만 박근혜의 비참한 종말은 역도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인 동시에 천하의 악녀를 등에 업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파쑈독재통치에 미쳐날뛴 괴뢰보수패당에게 과멸을 선고한것으로 된다.

사실상 괴뢰보수패당은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역도의 공범자들로서 남조선에서의 대세의 흐름으로 보나 민심의 요구로 보나 철저한 청산대상이다. 박근혜와 같은 재앙의 화근을 권력의 자리에 올려앉히고 년의 반역정책과 부정부패, 《국정》롱단행위를 적극 뒤받침함으로써 사상 류례없는 정치추문사건을 빚어내고 사회를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만든 범죄집단인 괴뢰보수패당은 응당 그 엄청난 죄악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력사무대에서 사라져버려야 마땅하다.

박근혜역도가 남긴 온갖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주장도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물만 한 량심도 없는 추악한 정치시정배들의 집합체인 《자유한국당》것들은 뻔뻔스럽게도 민심을 거역하며 보수세력의 규합으로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고 인민들을 또다시 억누르려고 발악하고있다.

다 망한 저들의 신세도 모르고 어리석은 야망을 드러내며 정국을 또다시 어지럽히는 괴뢰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가도 자신들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할수 없다. 보수패거리들이 득세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을 면할수 없다는것은 비단 력사의 교훈만이 아니라 오늘의 실지 체험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며 일떠서고있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악취만을 풍기는 역적무리가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철저히 짓뭉개버려야 할것이다.

심 철 영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과 그에 편승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의 월권행위가 극도에 달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1일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천명하는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공보문은 최근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를 내세워 유엔본부에서 전례없는 지역그루빠별 비공개통보모임이라는것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반공화국제재열의를 고취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제재결의》리행에 많은 나라들이 나서지 않고있다고 악청을 돋구면서 《제재결의》를 리행하지 않거나 관심을 돌리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재로 처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있는데 그자체가 미국이 고안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의 비법성과 무당성을 증명해주고있다.

《제재결의》가 정의에 기초하고 법률적근거가 명백하며 국제사회가 납득할수 있는 타당한것이라면 구태여 구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리행되리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더우기 대조선제재위원회가 주민생활에 무정적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쪼아박은 《제재결의》내용마저 뒤집어엎고 확대해석하여 나라들사이의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식량경영 같은것까지 《위법행위》로 걸고드는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해무력을 종추로 하는 공화국의 막강한 국방력에 질겁한 나머지 다른 나라들에 나가있는 우리 식당들까지 력무기나 탄도로케트제작공장으로 착각하고있는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제재광증이나 그의 대조선정책실행도구로 전락된 제재위원회의 추태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밖에 될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저들이 조작해낸 《제재결의》가 정당한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유엔사무국에 이미 여러차례 제기한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데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응해나오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제재리행을 강요하기 전에 왜 그런 《제재결의》가 리행되지 않는가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해보아야 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연단에서 그 적법성여부가 해명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공화국정부는 제재라는 미명하에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의 광란적인 적대시책동을 초보적인 국제적법규나 무역거래상식마저 무시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생존권마저 짓밟고 암흑사회로 되돌리려는 반인륜적인 특대형범죄행위로 락인하며 전면배격한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의 퇴물인 괴뢰보수패당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영영 매장해버려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민심에 도전하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들을 저질러온 괴뢰보수패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고 력사의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천하악녀 박근혜에게 들어붙어 권력을 틀어쥐고 그렇게도 기세등등해 날뛰던 보수떨거지들이 바람앞의 초불신세가 된 가련한 꼴들을 보면서 남조선 각계층은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라고 한결같이 저주를 보내고있다.

사실 괴뢰보수패당에게는 이미 억도년의 한련과 함께 멸망의 조종이 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깡패들이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재집결》이니, 《대통합》이니 하고 야단을 떨면서 어중이떠중이 친박떨거지들을 규합하여 다시 권력을 찬탈해보려고 최후발악한것은 정신적기형아, 인간오작품들의 막판광대극이였다고 해야 할것이다.

《자유한국당》후보로 《대선》판에 뛰여들었던 홍준표는 《보수대통합에 의한 친북좌파세력청산》이니, 《보수대통합을 위한 큰 정치》니 뭐니 하고 고아대면서 박근혜탄핵이후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친박청산의 일환으로 당에서 징계하였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을 비롯한 골통악질보수분자들을 복귀시키고 저들패당에서 떨어져나갔던 《바른정당》의 탈당파들까지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복닥소동을 피우며 돌아쳤다.

괴뢰보수패당의 재집결놀음에 《박사모》니, 《엄마부대》니 뭐니 하는 친박떨거지들도 《친북좌파에게 운명을 맡길수 없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웨쳐대며 컴컴한 구석구석마다에서 쥐새끼마냥 기어나와 함세해나섰다.

흩어졌던 보수패거리들을 집결시켜보려는 괴뢰보수패당의 흉악스러운 추태는 촛사 독을 품고 날뛰다가 몽둥이세례를 맞고 태질하며 늘어졌던 독사들이 피비린내를 맡고 다시 꿈틀대며 대가리를 치드는 모양을 방불케 하였다.

더욱 역스러운것은 괴뢰보수패당이 《안보위기》와 《종북세력청산》을 재집결의 방편으로 내들고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발광한것이다.

애당초 똑똑한 정치철학도 없으며 한치앞을 내다볼 시력도 마비되고 민심의 목소리를 들을 귀마저 막혀버린 산송장들이 《대통합정치》에 동참해달라.》고 허공에 대고 목터지게 웨쳐대는것이야말로 력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세워보려는 시대의 퇴물들의 청승맞은 추태가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괴뢰보수패당이 권력의 자리에 똬리를 틀고앉아 한것이란 남조선을 중세기적인 파쑈암흑천지로, 민생과 민권의 페허지대로 전락시키고 북침전쟁광기를 부리며 동족대결을 극대화시킨것뿐이다.

외세의 바지가랭이와 박근혜의 사타구니에 붙어 기생하며 천추에 용납 못할 해악만을 끼쳐온 이런 인간추물들이 모여들수록 쓰레기더미만 가득 쌓여 악취밖에 풍길것이 없으며 북남관계파국과 전쟁위기, 민생참사 등 과거의 끔찍한 악몽만 재현되게 될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특대형정치추문사건이 터진 그때에 벌써 청와대악귀인 박근혜년과 함께 그 부역자들인 괴뢰보수패당을 역도년의 추악한 공범자로 락인하고 사형선고를 내리였다.

그동안 괴뢰보수패당이 억도년의 꺼져가는 숨통을 조금이나마 연명해주어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과멸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보려고 별의별 발버둥질을 다 하였지만 이미 기울어진 불리한 형세를 역전시킬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보수패당이 권력쟁탈에 피눈이 되여 《재집결》, 《대통합》나발을 요란스럽게 불어대며 발광하였으니 그야말로 무덤의 망두석도 웃을 일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력사의 패잔병들이 뻔뻔스럽게도 다시 고개를 쳐들고 《새로운 보수개척》이니, 《대동단결》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며 박근혜잔당들까지 다 긁어모아가지고 과멸의 나락에서 헤어나보려고 발악적으로 날뛰고있는것이다.

12일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친박청산대상이 되였던 골통보수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제하고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을 복당시킴에 대해 최종결정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초불민심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며 박근혜의 암흑시대를 되살려보려는 괴뢰보수패당의 비렬한 망동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조선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장래를 위해서도 괴뢰보수패당은 이미 치박힌 무덤구뎅이에서 다시 게바라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대로 썩어문드러져야 한다.

력사의 퇴물인 괴뢰보수패당을 깨끗이 청산하는것이 새 정치, 새 생활,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한 지름길이라는것을 자신들의 뼈아픈 체험을 통해 절감한 남조선인민들은 지금 평화의 원쑤이고 통일의 장애물이며 민족의 재앙덩이인 보수패당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게 영영 매장해버릴 기세에 넘쳐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심을 거역하고 민족을 반역하며 정의와 진리에 도전하는 력사의 반동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리고 민족의 밝은 앞날을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다.

주체106(2017)년 5월 13일
평 양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기도

얼마전 일본수상이 헌법시행 70년관련행사에서 우리의 《핵, 미싸일개발로 안보환경이 변화》되였으므로 헌법헌법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력설해댔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국회의원들앞에서 《기회가 성숙되였다.》느니 뭐니 하며 올해에 어떻게 하나 헌법개정의 첫걸음을 내짚을것이라고 키염을 토했다.

헌법개정을 《일본이 새로 태여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수상이니, 내각관방장관이니 하는 인물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입버릇처럼 내뱉는 소리이다.

한편 일본《자위대》가 일본수역과 태평양상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의 4개국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일본은 조선반도를 넘보며 미국과의 침략전쟁연습을 밥먹듯 해왔다. 그러나 북대서양연안의 영국, 프랑스무력까지 끌어들여 합동군사연습의 북통을 요란히 두드려대는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이 미국과 결탁하여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참가국수를 확대하고있는것은 상전의 침략전쟁책동에 적극 편승하여 지역정세를 계속 악화시키며 그를 구실로 전패국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침략기도의 발로이다.

일본반동들이 헌법개악을 위한 구실로 우리의 《핵, 미싸일개발로 인한 안보환경변화》를 광고해대는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는 기본장본인이 미국이라는것은 더 론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에 부채질을 하면서 간특하게 제 리속을 차리려는 일본도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주범이다.

일본은 패망후 지난 70여년간 대미추종을 국시로 정하고 일본렬도를 그 무슨 《불침항공모함》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침략의 핵전초기지, 병참기지로 내맡겼다. 조선반도주변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우리를 위협공갈하며 벌어지는 핵전쟁연습에 주일미군무력이 투입되고있다.

이제는 일본《자위대》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뻐젓이 끼여들고있다. 아시아판 나토는 사실상 조작된것이나 같다. 일본은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극단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에 공모결탁한 저들의 죄과는 당반우에 얹어놓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필연적인 정당방위조치를 걸고들며 헌법개악의 당위성을 설교해대는것은 완전한 자기기만이며 족제비도 낯을 붉힐 파렴치한 망발이다.

문제는 헌법개악에 굴뚝같은 야욕을 보이고있는 현 일본당국의 흉심이다.

일본반동들은 오래전부터 헌법개악을 위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써왔다. 일본사회가 군국화된 오늘에 와서 드디여 때가 왔다고 라산하고있다.

헌법개악의 목적은 교전권과 참전권을 되찾고 일본을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드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이 뜯어고치지 못해 몸살을 앓는 헌법 9조를 투시해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1947년에 시행된 현행헌법 9조 1항에는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기되여있고 2항에는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륙해공군 및 그외의 어떤 전쟁무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전쟁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여있다.

9조를 통하여 일본은 다시는 그 누구와도 전쟁을 하지 않으며 그러한 군사행동에 일체 참가하지 않겠다는것과 집단적자위의 권리를 포기한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헌법으로 담보하였다. 여기에는 파쑈도이췰란드 및 이딸리아와 집단적인 군사동맹을 맺고 행성을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속에 빠뜨린 전범국, 전패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징벌의 뜻이 다같이 반영되여있다.

그런데 현 일본집권자는 이 9조 1항에서 《영구히 포기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로, 2항은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정보충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시키려 하고있다.

일본의 재침을 불허한 헌법조항의 알맹이들을 뒤집어놓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재침의 허용이다.

《자위대》를 《대동아공영권》의 망상밑에 다른 나라들을 피묻은 군화발로 메주밟듯 하던 때의 일본군으로 변신시키고 해외팽창의 길을 닦는것, 이것이 《일본이 새로 태여나는 계기》를 운운하며 섬나라반동들이 제창하는 헌법개악소동의 본질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하고 구테의연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것을 일본은 간교한 목적실현의 더없이 좋은 기회로 여기고있다. 얼마전 일본집권자가 기자들앞에서 트럼프가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군사력사용을 포함한 모든 선택안들을 락우에 올려놓고있는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망발한것도 정세긴장을 부채질하기 위해서이다.

조선반도긴장격화를 명분으로 《자위대》호위함 《이즈모》호가 그 무슨 《보호》의 미명하에 미제침략군함대의 보급선 꼬무니를 줄레줄레 따라다니는것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마이니찌신붕》과 《도꾜신붕》 등 일본언론들이 미군함정이 태평양연안륙에서 항해하게 되여있어 공격받을 위험성이 낮다고 하면서 《이즈모》호의 임무수행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한것이 우연치 않다.

일본에서 광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는 헌법개악책동은 단순히 일부 몇구나 표현상의 수정문제가 아니며 일본당국자들이 떠들어대는것처럼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것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호전행위이다.

지금 일본주변의 태평양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벌려놓은 4개국합동군사연습은 그에 대한 직관적인 립증이다. 여기에 보다 내용적으로 음미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파쑈도이췰란드 및 이딸리아와 군사동맹을 맺은 일본의 적국이였다.

일본은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자국이 이제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적국들과도 무람없이 어울려 집단적군사행동을 할수 있는 정상국가인듯이 광고하려는 교활한 정치적목적도 추구하고있다.

도적고양이가 기름종지 노리듯 재침의 주로 야금야금 다가서는 일본, 전패국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군국주의독사를 보며 세계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과거의 침략전쟁을 유미렬강들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나라들을 해방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분식하며 아스구니전자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도죠 히데끼와 같은 특급전범자들의 위패앞에 꿇어엎디여 앙갚음의 이발을 가는 일본극우익정객들의 재침망상이 섬나라에 몰아올 재난이다.

일본의 재침야망실현의 첫번째 대상은 우리 공화국이다.

그러나 일본반동지배층은 오늘의 조선이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조선전쟁시기에는 일본이 미국의 뒤치닥거리를 하며 우리 민족이 당하는 재난을 기회로 황금소나기를 맞았지만 오늘날에는 사정이 다르다. 호들갑스러운 전쟁하수인노릇을 한 대가로 어떤 불소나기를 뒤집어쓰게 되겠는지 생각이라도 해보고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할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한 성원국으로 떳떳이 살아나가기 위한 길은 헌법개악이나 합동군사연습에 있는것이 아니라 력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성근하게 과거를 반성하는데 있다.

리 효 진

단평 세계최악의 패덕광

미국은 지난 4월에 아프가니스탄에 투하한 《GBU-43》초대형폭탄을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세계에 광고하고있다. 이를 놓고 최근 로마교황은 어머니라는 말이 치명적인 무기를 가리키는데 람용된것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수치감을 느꼈다고 개탄하였다.

옳은 말이다.

어머니란 삶을 주는 신성한 존재이다. 어머니를 떠나 인류력사를 론할수 없다.

하기에 누구는 자손만대로 물려오는 귀중한 조국을 어머니에 비유하고 어느 시인은 고결한 인간사랑의 절정에 모성애를 놓기도 한다. 어머니조국, 어머니사랑, 어머니젖줄기 등 세상에서 소중한 모든것이 어머니에 비유된다.

어머니란 이렇듯 신성한 부름이다.

그런데 유독 미국만은 엄청난 죽음과 파괴를 불러오는 초대형살인폭탄에 감히 어머니란 이름을 붙여놓았다.

미국만이 할수 있는것이다.

하기야 미국에는 아이를 버려도 된다는 법이 있어 어머니라 불리워야 할 녀성들이 피덩이같은 갓난아이들을 길바닥에 개밥처럼 내던지는것을 례상사로 저지르고있다.

황금과 폭력의 노예로 된 정신적불구자들이 자기를 낳아길러준 부모를 때리고 내쫓고 죽이는 범죄가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있는 곳도 이 매몰찬력의 나라이다.

세계 곳곳에서 침략과 전쟁을 일삼으면서 어린이들과 녀성들을 살해하는것을 도락으로 여기는 극악무도한 전범국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이러한 악의 제국에서 어머니라는 부름에 비끼있는 신성하다는 뜻은 사멸된지 오래다.

미국은 초대형살인폭탄에 어머니란 이름을 붙여놓음으로써 세계최악의 패덕광, 불량배국가라는것을 스스로 광고하였다. 그뿐아니라 고사은 《인권재판관》의 벙거지도 훌렁 벗어던졌다.

문명을 자랑하는 오늘의 세계에 미국이라 불리우는 악의 제국이 있다는 그자체가 인류의 수치, 행성의 치욕이다.

강 철 수

쏘련인민의 념원과 영웅적전통을 계승해나갈것이라고 언명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9일 크레믈리에서 진행된 전승절경축연회에서 연설하면서 쏘련인민의 념원과 영웅적전통을 계승해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로씨야가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패하였다면 로씨야민족은 사멸되였을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분시고에 지금까지 보관되여있는 나치스당과 파쑈국가의 문서들이 증명해주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과 위대한 조국전쟁의 진실, 로씨야인민이 승리를 위해 바친 희생에 대해 말할 때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생의 가치와 조국애의 의미를 그렇듯 뼈저리게 느끼고 지난 전쟁에 대한 추억을 매우 중요한 공통의것으로 여기는 날은 바로 전승절이라고 말하였다.

나치즘의 파멸은 전세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로씨야에는 비극과 죽음, 파괴로부터 해방된 위대한 명절로 되였으며 파렴치하고 배신적이며 악독한 원쑤를 쳐물리친 인민승리의 날로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로씨야인민은 로병들의 영웅성과 자기희생성, 소박성, 정신력을 찬양하고있다고 하면서 쏘베트인민은 커다란 희생의 대가로 가장 류혈적인 전쟁을 종결하고 승리의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가 승리자들의 세대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은 영원할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들의 념원과 영웅적전통을 간직하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줄것이다고 언명하였다.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아싸드가 9일 벨라루씨TV방송과의 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쏘련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려는 서방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이 전쟁시기 파시즘을 타승하는데서 는 쏘련의 중요한 역할을 숨기려 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오늘날 로병들은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모범으로, 완강성과 용감성의 상징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히틀러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은 전세대들처럼 현 세대들도 서방의 침략과 같은 현대판 나치즘에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쏘련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려는 서방을 비난

【조선중앙통신】

ㄱ-710756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